



Sulwhasoo

Sulwhasoo

Vol.49 March/April 2012

Vol.49 March/April 2012





雪花秀

열이 만든 칙칙함까지 빈틈없이 밝히다 설화수 자정미백에센스

멜라닌 케어에만 집중하는 미백은 반쪽짜리 미백입니다.
설화수는 자외선 노출로 인한 멜라닌 케어는 물론, 적외선 때문에 생긴
붉은 기, 노란 기까지 맑게 하는 근본부터 다른 미백을 완성했습니다.
빛과 열에 의한 칙칙함을 동시에 밝혀 눈에 띄게 화사해지는 피부톤을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담, 자정미백에센스

Sulwhasoo







매듭을 통해 인내를 배우던 규방 여인

The various shapes of knots created by yarns or strings are the major products of the sewing culture that are created at the fingertips of women. Unlike the Western knots, the traditional Korean knots require memory, creativity, and perseverance - the qualities required in the women of the quarters - as one string is used to create perfect symmetry. Each thread of raw silk is processed and dyed in natural dyes. Norigae, complete with the dyed yarns and the braiding skills of women, is considered a clone of women that reflects their emotions. The knots have been widely used on Norigae, carriers, kites, beddings, tassels, and fans used by anyone of any age. Due to its various uses, each type of knot is created rigorously, requiring perseverance and tenacity. Throughout their lives, the women in the quarters learned to control their minds and developed perseverance, completing the knots one by one.

실이나 끈 한 가닥으로 다채로운 모양을 만들어내는 매듭은 여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규방 문화의 대표적인 산물이다. 우리의 전통 매듭은 서양의 매듭과는 달리 끈목 하나로 상하좌우 대칭을 만들어내기 위해 기억력과 창의성 그리고 인내심이 요구되는 규방 여인의 덕목과 일치하는 공예다. 생사를 일일이 손질해 천연염료로 염색하고, 그 색실로 실눈이 살아 있는 끈목을 짜던 여인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노리개는 만든 이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긴 규방 여인의 분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듭은 여인의 치맛자락 사이로 보이는 노리개에서부터 이동 수단인 가마나 연, 실내장식용인 침장 걸이나 헛대, 그리고 부채 끝에 장식하는 선추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널리 사랑받았다. 이렇듯 다양한 쓰임새의 매듭은 그 용도에 따라 공정이 까다롭기 그지없기에 매듭 하나를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인내를 배웠던 여인의 삶과 일맥상통한다. S

에디터 유수아 사진 구분창 작품 박선경



32



14



52

Sulwhasoo

March/April 2012

자연과 상생하는 빼어난 아름다움, 설화수

설화수의 시작은 바로 한방 화장품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한방 화장품의 대명사라는 명성을 얻기까지는 여성의 피부에 대한 애정과

한방 성분에 대한 열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우리 땅에서 움트고 자란 순수한 국산 한방 성분만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는 설화수의 자존심입니다.

이 땅의 좋은 약재를 찾기 위한 노력과 애환은 제품 하나하나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설화수의 이러한 역사와 철학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러나 고집과 신념을 지닌 채 계속되었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며 상생(相生)하는 설화수의 정신은 옛 여인들이 지닌 아름다움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물의 시작은 자연입니다. 자연에서 취한 것을 통해 아름다움을 가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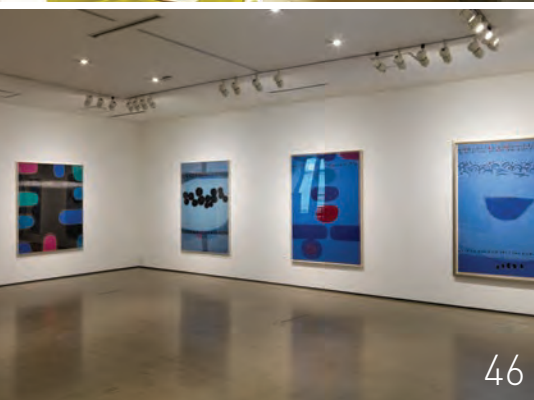
자연과 하나 되는 자연과의 상생, 이것이 바로 설화수가 추구하는 미감입니다.

고은여성문화지(古恩女性文化誌) (Sulwhasoo)는 예스러운 것을 사랑하는 여성을 위한 문화 교양지를 뜻합니다.

전통적인 것이 선사하는 단아함을 현대적인 미감과 접목한 전통과 현대의 상생을 추구합니다.



40



46

다시 보는 우리 유물	절제된 내용을 화려한 형식으로 감싸다, 청자상감운학문모자합	06
집 안 단장	웃음과 정겨움으로 엮은 한 폭의 그림	08
몸단장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처럼	10
한국 문화 읽기	보자기 Bojagi	12
피부 섬기기	미백의 근원을 실현하다	14
설화수와 인연을 맺다	뮤지컬 음악감독 장소영, 음악과 무대 사이를 조율하다	20
격조 높은 삶	손님을 맞는 것에도 격이 있다	26
맞이하다	조선 시대 손님 접대 문화에 담긴 여인의 숨씨와 품격	28
어우러지다	사랑방에서 손님을 맞다	32
살펴보다	한옥에서의 하룻밤으로 과거를 여행하다	38
세계 디자인 호텔	크리스찬 라크루와의 감각적 세계	40
아트 클래스	하늘과 달과 항아리를 사랑한 한국 미술사의 거장 김환기	46
전통과 현대의 조우	조선의 전통과 서양의 현대가 만나다	52
설화문화전 장인을 만나다	대물러 세월을 매듭저은 장인일가	60
명사들의 그릇장	한복 디자이너 이효재, 효재의 살림을 엿보다	66
휴(休)의 공간을 찾아서	성리학자, 사찰에서 휴식하고 교류하다	68
국악기행	소리의 정원에 울려 퍼진 가야금 선율	74
설화도감	뿌리 깊은 야생초	78
설화백서	몸을 향기롭게 하다	82
설록다원	아스라이 번지는 사랑하는 이의 향기	84
설화수 스파	자연과 전통, 그리고 과학이 만들어낸 도구	86
문화 즐기기	극적인 삶을 살았던 아름다운 황후 이야기, 뮤지컬 <엘리자벳>	88
마음 단장		90
설화수 뉴스		92
전통공예 배우기		93
Insides Sulwhasoo		94
독자 선물		96



Throughout 2012, the covers of <Sulwhasoo> Magazine will display the artworks from the 2011 Sulwha Cultural Exhibition. The artwork on the March/April issue will be 'Norigae' of Park, Seon Keung, the master of knots. The craft of knots that requires perseverance, the quality required in the women of the quarters, is a traditional craft of Korea that displays the braiding skills of the Korean women.

2012년 설화수 매거진 표지는 2011년 설화문화전 작품들과 함께한다. 3/4월호에 소개되는 작품은 매듭장 박선경의 '노리개'. 인내라는 규방 여인의 덕목과 일치하는 매듭 공예는 끈목 하나에 여인의 숨씨가 드러나는 우리의 전통 공예이다.

에디터 유수아 사진 구분창 작품 박선경

●발행인·서경배 ●편집인·권영소 ●발행처·(주)아모레퍼시픽·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7가 181번지 ●제작·마케팅 커뮤니케이션팀 ●문의·최상구 02)709-5401 ●편집, 디자인·Solution Co., Ltd.·서울시 강남구 청담2동 85-3 남한강빌딩 3층·Vip Marketing Dept. 02)3443-6923 www.ineighbor.co.kr 편집인·안나랑·문비송 디자인·남경화 마케팅·윤여찬 ●발행일·2012년 3월 1일(통권 제49호) ●사진·GURU visual 02)747-6118 ●시스템 출력·Scan & Photoengraving Ing Process ●인쇄·(주)태신인팩 02)853-6574 www.inpack.co.kr 인쇄인·서경현

<Sulwhasoo>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Sulwhasoo>는 격월간지로서 월간 <Neighbor>를 발행하는 Solution Co.에서 제작 대행하고 있습니다.



절제된 내용을 화려한 형식으로 감싸다
청자상감운학문모자합

사람 사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나 나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 누구나 저녁이 되면 자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입고, 일하고, 사람을 만난다. 젊은이들은 늘 그 시대 어른들의 걱정거리였고, 여인들은 늘 자신을 가꾸는데 남달랐고, 남성들은 권력 다툼에 정신이 없었다. 어떤 때는 과거의 사람들이 훨씬 섬세하게 일상을 건사하고 살았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의 삶을 유추할 수 있는 고미술품들이 주로 돈궀나, 권력궀나 있었던 이들이 사용하였던 명품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몰라도 그들이 일상에서 사용하였던 것은 현대인들도 탄복케하는 것이 있다. 청자상감운학문모자합(靑磁象嵌雲鶴文母子盒)도 그 중 하나이다.

고려 시대 화장품 키트에 해당하는 청자상감운학문모자합은 그 시대 대표적인 문양들이 상감으로 시문되었다. 큰 합인 모합(母盒)에는 여섯 마리의 학이 한 방향으로 날고 있고 그 주변을 구름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상감되었다. 원래 둥근 선을 가지고 있었던 구름 모양은 간략하고 딱딱해져 번개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문양은 이 모자합이 14세기 경에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 큰 합에 들어있는 네 개의 작은 합인 자합(子盒)들 역시 번개 모양의 구름문이 상감되어 있어, 모합과 문양의 통일성을 보여준다. 자합과 함께 들어있는 유병은 보통의 유병보다 납작한데 이는 큰 합에 부속으로써 형태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유병의 어깨는 연주문(連珠文)으로 상감되어 있다. 이러한 세트 형태의 그릇은 별도로 굽기 때문에 가마가 식을 때 수축을 등 다양한 요소가 있어 개별적으로 유색에 차이가 날 수 있다.

고려 시대의 또다른 대표적인 화장품 키트 박스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투각된 청자 사각함에 작은 자합들이 들어있는 것이 있다. 이를 통해 당시 다양한 형태의 모자합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자합 등을 통해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의 청자상감모자합 역시 화장품 용기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같은 시기 나전칠기로 만들어진 자합이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형태의 화장품 키트는 당시에 유행하였던 것이었고 그 재질에 따라서 사용하는 계층의 등급이 나뉘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자합은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고려 시대 사람들은 평소에는 목욕을 자주 하여 피부를 다스렸다고 하니 이들이 화장했던

때는 팔관회, 연등회 등 공식적인 큰 잔치가 있을 때나, 절에 불공드리러 가는 등 주로 외출하였을 때로 보인다. 이러하니 당연히 이러한 화장품 용기는 집에서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자합은 유력한 집안에서 여인들이 시집갈 때 혼수품으로 가져가거나, 시어머니 또는 다른 이들에게 선물을 받았을 수도 있다. 현재 전해지는 것들은 작은 소합들은 많지만 소합과 대합을 함께 갖춘 모자합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아마 고려 시대에도 그렇게 많이 제작되지 않았던 아주 귀한 도자기세트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시대에 여인들은 얼굴에 바르는 분백을 사용하였으나 연지는 사용하지 않았고 눈썹은 가늘게 그렸다고 한다. 또한 목욕과 향이 발달하여 귀족여인들이 향낭을 차고 다니는 것이 큰 자랑이었다. 그러나 고려 시대의 화장은 황실의 공연을 담당하였던 교방의 기녀들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이들의 화장법은 분대(粉黛)라고 하여 얼굴과 눈썹을 중심으로 한 화장에서 유래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현대 한국에서 몇 년째 계속 지속되고 있는 화장 트렌드는 동안(童顏)과 내추럴이다. 즉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 아이같이 생기고 밝은 피부처럼 보이면서 자연스러움을 강조한 화장법이 유행하고 있다. 그에 따라 생기있는 피부톤을 살려주는 비비크림은 화장품의 필수품이 되었고 남자들이도 그 유행에 동참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미술품인 고려청자, 나전칠기, 입사공예품을 미루어 볼 때 고려 시대의 문화는 화려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중국 송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는 등 다양한 문화가 고려에 들어와 있었을 테니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소박하고 절제된 조선 시대의 미술품과 비교할 때 그 화려함과 귀족적 색채는 두드러진다.

그러나 화장법에서는 오히려 절제된 모습을 보인다. 색조화장을 절제하고 목욕을 생활화하여 생기 있는 피부톤을 유지하고 분백과 향을 중심으로 사용하였으니 당시 귀족들의 화장법은 현대의 동안과 내추럴 화장법과 유사해 보이기도 하다. 절제된 내용물을 화려한 그릇에 담아 문화적 균형을 맞췄다.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의 격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이 화장용구는 옛 것이어서 고루하기보다 현대인들의 과시욕과 가벼움을 꾸짖는 듯하다. S

글 문선주(아모레퍼시픽 미술관 학예연구실)

웃음과 정겨움으로 엮은 한 폭의 그림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라던 어느 가수의 노랫말처럼 차마 웃을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더라도 울기보단 웃으며 참아내는 것.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삶의 미덕이다. 무조건 참아내기보다는 힘든 상황에서도 꺾결대며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 것. 여기 해학과 풍자, 익살, 유머, 유티 등 여러 모습을 갖췄으나 결국에는 웃음이라는 선물을 안겨주는 집 안 단장 소품들을 소개한다. 너털웃음의 하회탈을 닮은 여러 가지 색깔의 비누, 서민들의 역동적인 정서가 맛깔나게 그려진 민화의 주인공들을 현대적인 생활용품으로 재해석하는 등 삶의 희로애락을 웃음이라는 기가 막힌 장치로 승화시킨 선조들의 지혜를 담아낸 소품으로 집 안을 꾸며보자. 미처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견한 즐거움으로 집 안 곳곳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건 시간문제일 듯.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임태준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어시스턴트 손예희, 윤숙현 **도움 주신 곳** 고은재(010-8750-3566), 맘키트(02-539-7959), 무늬공방(02-736-5733), 무제아시아(02-557-9286), 반짝반짝빛나는(02-730-8373), 서울아트센터 공평아트샵(02-3210-0071), 손아름(010-7238-1632), 아원공방(02-735-3482), 예술로 만든 선물(02-737-8956), 이세용 도예(02-739-7555), 하나아트(02-737-6550), 한국공예 문화진흥원(02-733-9041)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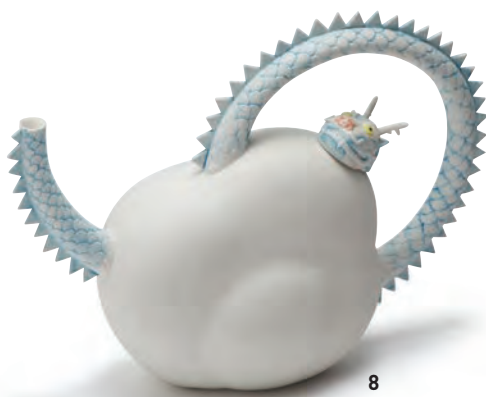
5



6



7



8



9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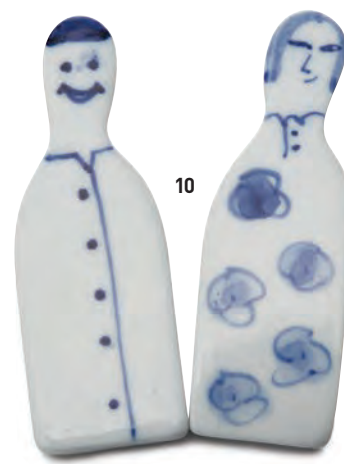


13



12

1 전통 꼭두 인형에서 모티프를 따온 도자 장식품은 반짝반짝빛나는 전통 탈 모양으로 만든 미니 비누는 고은재. 2 용의 해를 기념해 만든 앙증맞은 일러스트레이션이 그려진 에스프레소 잔은 맘키드. 3 전통 탈 모양으로 만든 미니 비누와 와당 모양 비누 받침대는 고은재. 4 김홍도의 그림과 각시 탈이 재미있는 오르골은 무늬공방. 5 꽃향기에 취한 강아지를 보고 있자면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김정선 작품이 프린트된 마우스 패드는 하나아트. 6 폭신폭신한 물고기 인형은 다름 아닌 마우스 손목 받침대. 모노컬렉션 제품으로 류제아시아. 7 민화 속 물고기가 그려 있는 에스프레소 잔과 오동나무 컵 받침은 여경란 작품으로 예술로 만든 선물. 8 민화 운룡도(雲龍圖)에서 영감을 얻은 주전자는 손아름. 9 호롱을 모티프로 만든 양초는 한국공예 문화진흥원. 10 익살스러운 표정의 수저받침은 이세웅 도예. 11 꽃나무 위에 걸터앉은 원숭이가 재미있는 도자 수반(水盂)은 유천욱·강현경 작품으로 반짝반짝빛나는. 12 물이나 술 등 액체를 담을 때 사용하던 장군병. 물고기와 꽃이 그려진 장군병은 박재국 작품으로 서울아트센터 공평아트샵. 13 호랑이 등 위에 올려진 수저받침이 웃음을 자아낸다. 반짝반짝빛나는. 14 손으로 직접 그린 꽃무늬가 정겨운 스톤은 노인아·안도영 작품으로 아원공방.



10



11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처럼



한낮의 햇살은 제법 따사롭고 상상했던 나뭇가지 끝자락엔 파릇 파릇 싹이 움튼다. 바야흐로 봄이 온 것이다. 설레는 마음에 지인들과의 만남도 잡아보려 하지만 아직 맘을 놓기엔 이르다. '이런 봄에 꽃이 피는 것을 생내는 듯한 추위'라 일컫는 꽃샘추위가 아직 기승을 부리기 때문. 겨울과 봄이 마지막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게다. 이럴 땐 발걸음을 재촉하는 봄 햇살을 모른 척하지 말라며 응원하는 액세서리와 함께 봄나들이를 떠나보자. 겨우내 들었던 머물러 대신 산뜻한 색감의 스카프로 포인트를 주거나 형형색색의 꽃문양 코르사주를 달아보는 것만으로도 한층 화사하게 몸단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화려한 색감과 과감한 무늬가 부담스럽다면 작은 소품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 봄비 내리는 어느 날, 예쁜 꽃 가득한 우산을 든 누군가에게서 꽃향기가 나더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을 것이다.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임태준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어시스턴트 손예희, 윤숙현 도움 주신 곳 규방도감(02-732-6609), 누브티스(02-735-0346), 루나터치(02-3674-1515), 루이엘(02-735-0309), 메종드마리(02-735-0329), 비아케이 스튜디오(02-6083-8399), 삼바이람(070-8803-8284), 서울아트센터 공평아트샵(02-3210-0071), 아신(02-736-0088), 예가(031-202-8052), 필튼 코리아(02-567-0086)





7



8



9



14

1 연꽃과 나비가 그려진 기품 있는 스카프는 누브티스. 옷칠한 소쿠리는 규방도감. 2 발랄한 색동 문양의 보타이는 루나터치. 3 고운 색감의 초충도(草蟲圖)가 그려진 안경집은 그랑 제품으로 서울아트센터 공평아트샵. 4 매듭 기법을 응용해 만든 수공예 귀고리는 삼바이림. 5 끼만 비단에 화려한 모란 문양이 그려진 파우치는 예가. 6 노란 깃털과 줄무늬 깃털이 화려하면서 산뜻한 느낌을 주는 머리핀은 삼바이림. 7 핸드 페인팅으로 그려진 꽃과 입체적인 코르사주가 포인트인 나들이 모자는 루이엘. 8 청아한 분위기의 난꽃 펜은 비아케이 스튜디오. 9 펼쳐면 향긋한 꽃향기가 날 듯한 우산은 펠튼 코리아. 10 단아한 꽃이 그려진 플랫 슈즈는 메종드마리. 11 발랄한 색상의 끈으로 만든 꽃머리핀은 비아케이 스튜디오. 12 양중맞은 꽃문양의 넥타이는 누브티스. 13 석류화조 민화와 물방울무늬가 상큼한 비단 스카프는 그랑 제품으로 서울아트센터 공평아트샵. 14 한 점의 수채화 같은 꽃문양 가방은 아신.



10



13



12



11



보자기 Bojagi

규방 속에서 피어난 생활 예술품인 보자기는 어머니의 품속 같은 따뜻한 포용력을 지녔다.



서양 사람들은 가방을 만들었고, 우리 선조들은 보자기를 바느질했다. 가방은 물건을 많이 넣었을 때나 적게 넣었을 때나 혹은 아예 물건을 넣지 않았을 때라 할지라도 자체의 크기와 형태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들어 있는 것과 관계없이 가방은 어디까지나 가방인 것이다. 하지만 보자기는 다르다. 싸는 물건의 부피에 따라 커지기도 작아지기도 하고, 물건의 성질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진다. 네모난 것을 싸면 네모 꼴이 되고 둥근 것을 싸면 둥글어진다.

패물을 간직하고 보관하며, 함을 받치고 밥상을 덮고 이불을 싸고 빨랫감을 싸는 등 일상의 모든 일에 사용된 보자기. 덮개·쓰개·싸개·깔개 등으로 활용되는 보자기는 단정한 색감의 조각보에서부터 화려한 수가 놓인 비단 보자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보자기는 사용 계층에 따라 크게 궁보와 민보로 구분되는데, 궁보는 궁중에서 용도별, 규격별로 다량으로 만들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했고, 색상은 붉은색 계열이 많았다. 민보는 백성들이 쓰던 보자기로, 대표 격인 조각보는 말 그대로 천 조각을 모아서 틈틈이 만든 것이다. 조각난 천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서양의 퀼트와 비교되기도 하는 조각보. 서양의 퀼트가 한 면을 만들고 뒷면에는 천을 덧대어 '장식품'이라는 의미가 크다면, 양면의 바늘땀을 그대로 살리는 우리의 조각보는 실용성과 예술성이 겸비된 '생활 예술품'의 의미를 지녔다. 제한된 천 조각으로 조화로운 색채와 선적인 구성미를 표현한 조각보의 모티프는 다양한 형태의 상(床), 마루, 목가구, 창문 등 다름 아닌 집 안에 가득한 생활 소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여러 조각의 작은 천을 잇대어 만든 보자기. 그 안에는 무작위로 그려낸 예측하지 못한 조화의 아름다움이, 시집가는 딸을 위해 한 땀 한땀 정성스레 바느질한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다.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임태준 참고 문헌 <우리의 공예문화>(추원교, 예경), <우리문화 박물관>(이여령, 디자인하우스)

* 조각보와 혼수보는 모두 중요무형문화재 제99호 침선장 구혜자의 작품입니다.

Western people made bags, and our Korean ancestors sewed Bojagi. Bags do not change their sizes or shapes much, whether it is full or empty. They are just bags, no matter what they are carrying. Bojagi, however, is different. It changes in size and shape according to the size and shape of the object it wraps. When it wraps a rectangular object, it becomes rectangular; when it wraps a round object, it becomes round.

Bojagi was used every day to store valuables, lay boxes on, cover tables, wrap blankets, carry laundry, and so on. It was used to cover, wear, wrap, and lay, and came in various forms from neat-colored quilts to colorful silk Bojagi.

Bojagi was classified into Gungbo and Minbo. Gungbo was created in the palace for different purposes and sizes and was used whenever needed. Most were in red. Minbo was used by commoners, and the most common Jogakbo was the quilt made by joining pieces of fabric.

Jogakbo is compared to quilt as both of them use pieces of fabric. If quilt of the West was created for decorative purposes by creating designs on one side and covering the back with a big piece of fabric, Jogakbo of Korea was a craft item that was sewn on both sides for both artistic and practical values. Jogakbo expresses harmonious colors and linear compositions with a limited number of pieces of fabric and is a craft item that is like any other elements of your home, including tables, flooring, wooden furniture, and windows.

Bojagi was made by connecting small pieces of fabric. It contained the unintended beauty of harmony created randomly, and the heart of a mother who sewed Bojagi one stitch at a time for her marrying daughter.



미백의 근원을 실현하다

설화수가 추구하는 홀리스틱 뷰티는 진세노사이드 F1(백삼 사포닌)으로
가시화되었다. 잡티와 기미의 생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피부 바탕을
케어하려는 것은 아름다움의 실현에 있어 그 현상보다
전체에 주목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봄별에는 머느리를 내보내고 가을별에는 딸을 내보낸다더니 봄 햇살을 고민해야 하는 계절이 왔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봄이든 가을이든 햇살만이 문제가 아니라, 온도 역시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햇빛 속에는 피부 톤을 좌우하는 자외선과 적외선이 존재하는데, 미인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하얗고 잡티 없는 피부가 되기 위해서는 자외선인 빛뿐만 아니라 적외선에 해당하는 열, 즉 평균 기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이론이다. 눈 오는 기간이 긴 편인 북반구일수록 피부색이 하얗고, 날씨가 더운 남반구로 갈수록 피부색이 검다는 보고서는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같은 동양 여성이라 할지라도 자외선의 양이나 평균 기온의 노출 정도에 따라 피부색이나 노화의 정도는 천차만별이다. 하얀 피부가 되고 싶다면 꾸준한 관리가 필수인 것이다.

진세노사이드 F1(백삼사포닌)이 적용된 자정스팟에센스 설화수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자정스팟에센스는 빛과 열에 의해 끊임 없이 생성되는 기미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인삼 미백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F1(백삼 사포닌)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기미와 잡티의 케어는 물론, 피부 환경까지 개선해 기미 방어력을 키워준다.

자정스팟에센스는 세 단계를 거쳐 기미와 잡티를 관리해주는데, 그 시작은 기미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자정스팟에센스의 주요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F1(백삼 사포닌)은 과도하게 생성된 기미와 잡티로 인한 색소침착을 다스린다. 또한 색소침착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을 억제함으로써 한 번 생긴 기미가 퍼지지 않도록 한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앞으로 생길 기미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인데, 피부

왼쪽 빛에 노출됨으로써 생기는 기미와 잡티는 물론 열에 의한 피부의 자극까지 개선해주는 설화수 자정스팟에센스는 미백의 근원을 실현해줄 것이다. 얼굴 모양의 액자는 박정옥 작가 작품.

Spring has come, and it is time to protect your skin from the sunlight. If you take a moment and think about it, you will realize that the temperature also affects your skin in addition to the sunlight, regardless of the season.

Sunlight, to which we are exposed every day, contains ultraviolet and infrared rays that affect your skin tone, and there is a theory that for beautifully white and flawless skin, one should consider the heat or average temperature in relation to infrared rays, in addition to the UV rays in the sunlight. A supporting report states that the people living in the Northern Hemisphere, which has longer snowy seasons, have whiter skin, whereas those in the Southern Hemisphere, which has warmer climates, have darker skin.

The skin tone and the degree of aging, however, vary significantly for Asian women, according to the amount of UV rays and the exposure to average temperature. If you want whiter skin, constant skin care is critical.

The new SNOWISE Spot Serum of Sulwhasoo applies Ginsenoside F1(white ginseng saponin), the whitening ingredient from ginseng, to essentially prevent dark spots that are constantly created by light and heat. It is a new whitening spot serum formulated with traditional herbs to take care of dark spots and blemishes and fortify your skin's defense capacity.

SNOWISE Spot Serum manages dark spots and blemishes in three steps, and the first step is to block the cause of dark spots. Ginsenoside F1(white ginseng saponin), the major ingredient of SNOWISE Spot Serum, takes care of the excess inflammatory factors in your skin to treat the pigmentation caused by dark spots and blemishes.



雪花秀

왼쪽 보는 각도에 따라 피부 톤을 보장해주는
파우더가 함유된 선풍수 자정팩트는 SPF42,
PA+++의 기능성 제품이다.

수분을 촉진해 기미나 잡티가 쉽게 생성되지 않는 피부로 바탕을 바꾸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세 단계는 선풍수가 추구하는 홀리스틱 뷰티의 정신을 실현한 것이다.

미백의 바탕을 실현하는 선풍수 자정 라인

물론 미백의 완성에 선풍수의 과학적인 연구가 바탕이 되었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삼 유래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F1은 기존의 미백 성분들과는 달리, 기미의 형성에서부터 진행, 케어에 이르는 전체에 주목하고자 하는 홀리스틱 뷰티의 핵심 성분이기 때문이다.

자정스팟에센스는 아침저녁으로 자정수-자정미백에센스를 사용한 후 기미나 잡티 부위에 덧발라 사용하고, 자정스팟에센스 사용 후에는 기존의 순서대로 로션-크림-메이크업 단계로 진행하면 된다.

선풍수 자정 라인은 새롭게 선보이는 자정스팟에센스를 비롯해, 자정수, 자정수액, 자정미백에센스, 자정미백마스크, 자정미백크림, 자정비비베이스, 자정 팩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미백에 꼭 필요한 제품 라인이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다. 인삼으로부터 시작된 미백의 바탕은 자정수와 자정수액을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젤 타입의 한방 화장수인 선풍수 자정수는 피부 표면의 각질을 정돈해주어 다음 단계에 사용하는 미백 제품의 효능을 최상으로 끌어주기 위한 기초 단계의 제품이다. 피부에 수분 공급을 해줌으로써 촉촉하게 적셔주는 것이 특징이다. 기초 단계에서 사용하는 자정수액은 에센스형 로션 타입이라 촉촉하게 퍼 발리고 흡수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자정미백크림은 빛과 열을 다스리는 미백 효과를 활성화하는 제품으로 미백을 원하는 부위에 퍼 발라 사용한다.

자정미백마스크는 빛과 열에 의해 칙칙해진 안색을 개선해주는 한방 미백 마스크이다. 특히 일반 마스크와는 차별화된 백삼 발효 마스크 덕

It also inhibits the activities of the cells that generate melanin and cause pigmentation so that your existing dark spots will not spread. The best way to do this, of course, is to prevent dark spots altogether by promoting the moisture circulation so that your skin will not easily form dark spots or blemishes. These three steps realize Sulwhasoo's spirit of holistic beauty and apply various methods to complete whitening.

Sulwhasoo conducted intensive scientific research to complete whitening. As a result, it developed ginsenocide F1, which, unlike other whitening substances, is an important part of holistic beauty that affects the overall life cycle of dark spots, from formation to development.

SNOWISE Spot Serum should be used over dark spots or blemishes after using SNOWISE Balancing Water and SNOWISE Whitening Serum every morning and evening. After applying SNOWISE Spot Essence, apply your regular lotion, cream, and makeup to brighten your skin.

The fundamental of whitening with ginseng is SNOWISE Balancing Water. Sulwhasoo SNOWISE Balancing Water, a gel-type Korean herbal medicinal toner, is one of the basic products used to exfoliate the skin's surface to maximize the effect of other whitening products. It is formulated to deeply moisturize the skin. SNOWISE Balancing Water, one of the first skincare products used, exfoliates the surface of your skin so that the efficacies of other products can be maximized. Release an appropriate amount onto your palm and apply along your skin texture. It is recommended that the diameter of the product not be made to exceed 2.6 cm for each application. SNOWISE Whitening Cream activates the whitening effect by



雪花露

Sulwhasoo

SNOWISE
WHITENING FLUID

자정수액

분에 얼굴선을 따라 피부에 촘촘하게 밀착되어 마스크의 농축 성분이 피부 깊숙이 흡수되는 것이 장점인 제품. 2주간에 걸쳐 한 장 한 장을 수제로 발효시킨 까다로운 공정은 한국 여성의 얼굴형에 최적화한 디자인이라는 장점과 어우러져 뛰어난 효과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정수 사용 후 자정미백에센스와 자정스팟에센스 등으로 열과 빛을 다스려 피부 톤을 정리했다면, 마무리는 자정 라인의 메이크업 제품인 자정팩트와 자정비비베이스가 효과적이다. 빛과 열로 손상된 피부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호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빛과 열에 대한 특별한 미백 케어를 실천하다

조선 시대 네덜란드인인 헨드릭 하멜이 쓴 <하멜 표류기>에는 조선 시대 사람들이 그들의 하얀 피부를 부러워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흰 피부에 대한 선망은 시대를 초월함을 엿볼 수 있다. 아마도 상류층이 아닌 이상 농사를 지으며 자외선과 적외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여인들에게는 하얀 피부에 대한 염원이 더할 것이리라. 제아무리 피부 미인이라 할지라도 대책 없이 자외선과 적외선에 노출된다면 깨끗하고 하얀 피부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외부의 유해한 환경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각종 빛과 열에 노출되는 환경에서는 특별한 미백 케어가 절실하다. 잡티 없이 하얗고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는 각별한 관리만이 그 해답일 것이다.

설화수의 자정 라인은 노화 방지에서부터 안색, 잡티, 응급, 메이크업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으로 미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여인의 손에 쥐어져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S

에디터 유수아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도움 주신 곳 www.illda.com

왼쪽 다음 단계의 제품들이 미백의 효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정 라인의 기본 제품인 자정수액은 에센스형 로션 타입이라 흡수가 빠른 것이 장점이다. 얼굴 모양의 잔은 박정옥 작가의 작품.

treating light and heat and is formulated for application to spots where whitening is needed. Oldenlandiae diffusa Herba promotes fluid circulation and blood circulation within the skin for a clear and bright complexion.

SNOWISE Whitening Mask is a Korean herbal medicinal whitening mask that instantly improves dull complexion in only 10 minutes. Unlike ordinary sheet masks, its unique fermented white ginseng mask attaches to the skin for deep penetration of the concentrated serum. Each mask is strictly hand-processed and fermented for two weeks and is optimally designed to match the face of Korean women, thereby delivering only the best results you can expect.

If you treated heat and light with SNOWISE Whitening Serum and SNOWISE Spot Serum after SNOWISE Balancing Water, it is effective to use SNOWISE Whitening Mask for instant skin care, and SNOWISE Pact and SNOWISE BB Base for the finishing makeup. It is as important to protect your skin from light and heat as much as it is to refine your skin damaged by light and heat.

Even if you have beautiful skin, you cannot maintain clean and white skin if you keep exposing yourself to UV and infrared rays. As your skin is exposed to various sources of light and heat even indoors, you need special whitening care. Healthy and radiant skin is important, but it is useless with yellowness or redness. For flawlessly white and clean skin, the only solution is special skin care.

Sulwhasoo's SNOWISE Line suggests whitening through various methods pertaining to anti-aging, complexion, blemishes, emergency care, and makeup. Needless to say, the key is the touch of women who wish to be beautiful.

설화수와 인연을 맺다



뮤지컬 음악감독 장소영

음악과 무대 사이를 조율하다

10년간의 긴 무명 시기를 거쳐 음악감독에 데뷔한 그녀에게 지난 7년은 뮤지컬 음악과의 '찼한' 연애 기간이었다. 뮤지컬 작품이란 커다란 놀이터에서 자신이 작곡한 음악으로 배우, 관객과 소통했던 흥미로운 나날. 음악과 무대 사이, 오늘도 그녀는 행복하다.

아직 대중에게 음악감독은 낯선 존재다. 그녀가 음악감독에 입문한 것은 대중의 시선이 더욱 멀었던 2004년 가을. 인연은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다. 서울뮤지컬컴퍼니에서 뮤지컬 〈하드락카페〉를 재공연하는데 함께 일해보자는 의견을 건네왔다. 당시 그녀는 영화나 드라마 배경음악 작업에 참여하던 시기였다.

“재공연되는 작품이니만큼 내용도 바꾸고 음악도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기간이 한 달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기회다 싶어서 이렇게 얘기했죠. ‘저 작곡도 할 줄 압니다. 한번 맡겨보세요. 되게 잘하거든요’라고요. 물론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더라고요.”

당당한 자신감을 무기 삼아 음악감독에 입문한 그녀는 주변의 편견을 깨끗이 무너뜨리며 〈하드락카페〉를 성공적으로 무대에 올렸다. 이후 〈형제는 용감했다〉 〈싱글즈〉 〈피맛골 연가〉 〈남한산성〉 〈늑대의 유혹〉 등 수많은 창작 뮤지컬을 도맡으면서 음악감독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2007년 한국 뮤지컬 대상 시상식에서 작곡상을, 2009년과 2011년 한국뮤지컬 어워즈에서 작곡상과 작사작곡상을 각각 수상했다. 현재는 서울종합예술학교 학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나는 가수다〉 전문위원으로도 출연 중이다. 사실 사람들은 그녀가 단 7년 만에 ‘스타’ 음악감독에 올라선 것으로 생각한다. 심지어 고운 외모를 보고는 집안 배경이 든든할 거라는 오해까지 한다. 하지만 그녀의 삶을 되짚어보면 비단길을 걸었던 것도, 지름길을 선택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꽤 오랫동안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으며 종종 돌부리에 넘어지기도 했다. 심리적 시련은 아마도 사춘기 시절에 시작된 듯하다.

“워낙 주위에 부유한 친구가 많아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자주 느꼈죠. 학교 내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랄까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당시에는 친구들이 죄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일제 분홍색 보온 도시락을 가지고 다녔어요. 저요? 철제 도시락을 가지고 다녔죠. 아버지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레슨비를 제때 내지 못하기도 했고요. 그게 핸디캡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면서 뛰어난 작곡가의 길도 평탄치는 않았다. 각종 드라마와 영화음악 작업에 참여했지만 이름 석 자가 생각되는 경우가 부지기수. 분명 자신이 작곡을 했음에도 돈을 받지 못하거나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일이 세월과 함께 먼지처럼 켜켜이 쌓였고, 재정적인 문제는 입시 음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충해야 했다. 10년간의 무명 시절은 그녀에게 유독 길고 혹독했다.

“음악감독을 하면서 쉽게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힘들었던 무명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동안 다방면에서 작곡과 편곡을 하면서 실력을 쌓을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지난 10년 동안 그토록 하고 싶었던 작곡을, 그것도 내 이름 석 자를 내걸고 하니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어요. 감독에 데뷔하고 3년 동안은 4시간 이상 잠을 잔 기억이 없을 정도예요.”

시간은 손살같이 사라졌고 잠은 언제나 부족했으며 해야 할 과제는 태산같이 쌓였지만, 신기하게도 그녀는 행복했다. 몸이 힘든 날이 고달픈 삶과 동의어가 아니란 사실을 절실히 깨달으면서.

고백하자면 그녀가 체험한 작곡가와 음악감독은 태생부터가 본질적으로 달랐다.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음악, 그러니까 세미클래식을 작곡하는 일은 대부분 개인 영역에 속했다. 자신이 담당할 일만 제대로 한다면 문제가 없는 개인 작업이었다. 반면 뮤지컬 음악감독은 음악을 창작하면서 동시에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는, 훨씬 복잡한 직업이었다. 가령 뮤지컬 곳곳에 삽입될 음악을 작곡하는가 하면 극과 음악, 배우와 음악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했다. 일종의 무대와 배우, 음악 간의 조율사와 같았다.

“보통 뮤지컬 작품을 시작하면 두서너 달 동안 스태프와 배우들이 가족같이 일해요. 동료 의식이 정말 중





요하쵸, 혼자 도도한 척하거나 일방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다간 서로 부딪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음악감독 데뷔 초기에 제가 딱 그런 오류를 범했답니다. 주인공들과 다룰 때가 많았거든요. 배우와 감독 간의 기 싸움 같은 거였죠. 초보 음악감독을 무시할까봐 지레 제가 먼저 방어하고 센 척했던 것 같아요.”

7년 사이, 그녀는 꽤 성숙한 음악감독으로 성장했다. 여러 편의 작품을 거치면서 배우들의 생리도 터득했고 음악감독의 덕목도 깨달았다. 말하자면 자신이 작곡한 곡을 우선순위에 두는 대신 배우나 작품을 먼저 생각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그것은 자신의 욕심을 조금씩 덜어내는 성장통과도 같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음악보다 총괄적인 무대를 먼저 바라본다.

“예전에는 제가 작곡한 곡이 좋다는 평가가 최고의 찬사였어요. 지금은 드라마에 음악이 잘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기쁩니다. 비록 관객들 귀에 꽂히는 아리아가 없더라도 뮤지컬 극에 맞는 음악을 곳곳에 배치하려고 노력하죠. 슬픈 장면에선 노래로써 슬픈 기운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하고 싶어요.”

그녀가 음악을 만드는 시간은 주로 밤 시간. 음악감독이나 교수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나 본업인 ‘작곡가’로 컴백하는 시간이다. 그녀는 불현듯 영감을 받아 휘리릭 곡을 써 내려가는 스타일은 아니다. 매일매일 일기 쓰듯, 자신의 작곡 노트에 흥얼거리듯 음악을 짓는다. 종종 농담 삼아 얘기한다. 최고의 영감은 ‘마감’이라고!

“그냥 급적이는 거죠. 노트에 보면 작곡하다가 만 곡도 있고, 저만 알아볼 수 있게 기호로 표시해놓은 부분도 있어요. 가끔 낙서도 하고요. 어쨌든 전 작곡을 할 때 가장 행복한 듯해요. 작곡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상상력을 마음껏 내뿜는 과정이거든요. 때론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때론 마을 사람이 되기도 하니까요.” 음악을 작곡하면서 수많은 주인공에 빙의된다는 그녀, 현실에서는 열한 살짜리 딸을 둔 엄마이자 아내다. 가족을 떠올리면 일하는 엄마들이 모두 그렇듯,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돌아보면 그녀가 뮤지컬 감독에 입문했을 당시 딸 수진이는 엄마의 손이 가장 필요했던 네 살배기였다. 아쉽게도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도 못했고, 소소하게 간식을 챙겨주지도 못했다. 대신 일하는 ‘멋진’ 엄마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다. 여기에 나름의 교육철학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아이를 무작정 학원에 보내는 대신 스스로 상상력을 키우고 독립적으로 성장하도록 시간적·심리적 여유를 주겠다는 생각이었다.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적다고 무작정 학원에 보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 생각에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지식을 주입하면 상상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부모의 보호를 많이 받을수록 자립심도 약해지고요. 전 제 딸이 상상력이 풍부하고 독립적인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독립적인 성장을 꿈꾸는 건, 비단 딸아이에 대한 희망 사항만은 아니다. 올해 그녀는 창작 뮤지컬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류 문화가 되기를 바란다. 사실 창작 뮤지컬에 대한 그녀의 애정은 남다르다. 서너 편을 제외하면 이제까지 음악감독을 맡았던 뮤지컬은 모두 창작품들. 외국 라이선스 작품보다 흥행은 어려우면서 손이 많이 가는 ‘고된’ 작업에 매진하는 이유는 창작 뮤지컬에 대한 사랑과 사명감이 묘하게 섞여 있다. 특히 지난해 마흔을 넘기면서 창작 뮤지컬에 대한 사명감이 부쩍 커졌다. 올해부터는 뮤지컬 수는 줄이되 완성도가 높은 작품에 에너지를 쏟을 계획이다. 세계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멋진 작품, 그것을 그녀의 두 손으로 빚어내고 싶다. 음악과 무대 사이, 그녀는 오늘도 새로운 꿈을 꾸다. S

에디터 박지현(프리랜서) 사진 박재형 헤어 민(3story, 02-549-7767) 메이크업 햇님(3story, 02-549-7767) 스타일리스트 안수영 도움 주신 곳 셀렘 바 이 김영주(02-512-4329), 나무하네(02-512-4329), 발렌시아(02-514-9006), 마조리카(02-508-6033)

東方寶果



寶果 祥子寶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果平



果平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東方寶果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東方寶果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東方寶果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蓮花盤用



손님을 맞는 것에도 격이 있다

명문가일수록 손님을 치르는 것이 집안의 중요한 문화이자 일상이었다. 가문의 인심과 나눔의 정신은 바로 손님을 접대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손수 빚은 술과 정성이 깃든 상차림, 화려 잠자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부자리에서부터 방의 온기와 머무는 공간의 향취에 이르기까지, 손님이 돌아가는 그날까지 한 치의 오차 없는 치밀한 준비와 마음 씀씀이가 손님맞이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조선 시대 손님 접대 문화에 담긴 여인의 솜씨와 품격

조선 시대의 손님 접대란 근본 의미부터가 요즘과 달랐다. 양반집의 2대 업무를 봉제사 접빈객이라 일컬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 대가의 안주인은 1년 내내 이어지는 제사와 더불어 하루에도 수차례, 때로는 수십 명이 넘기도 하는 손님맞이 업무를 총괄 지휘했다. 거기에 요구되는 것은 여성으로서 치밀함과 경험에서 우러난 노련함, 그리고 아낌없는 마음 씀씀이었다.

여성이 주도하는 가정 경영의 핵심, 손님맞이

동트기 전에 일어나 웃어른 문안과 독서, 공부, 자기 수양 등으로 꽉 찼던 하루를 보낸 조선 선비의 일상 중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손님 접대였다. 이는 남자의 거처 공간인 사랑방에서 사회생활 전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요즘 같으면 회사의 회의실에서 할 만한 공적 모임은 물론이고 상업적 공간에서 개최했을 각종 회식, 접대, 학문 토론회나 시회, 심지어 정치적 회합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교류의 무대가 된 곳이 바로 사랑방이었던 것이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손님 접대는 오례의 하나다”라는 지침이 나오는 것처럼 사랑방에서의 손님 접대는 공식 행사이자 주요 의례였다. 음식을 법도에 맞게 내고 예를 다하여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역할 분담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했다. 남자의 사회 무대가 사랑방이라면, 여성은 그 무대가 원활히 움직이도록 무대 뒤에서 총감독을 했던 셈이다. ‘안주인’이라는 말 그대로 여성은 집안의 주인 역할을 함으로써 사랑방에서의 모든 대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했다. 음식상과 다과상을 품위 있게 차려내는 것은 기본이고, 때로는 전문 비서나 참모에 준하는 업무도 소화했다.

300여 년 전 어느 종가에서 전해오는 기록에 따르면 가문의 특별한 행사 때 찾아온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200상이 넘는 다담상을 차려냈는데 손님에 따라 대상에는 35가지의 음식, 평상에는 25가지의 음식을 차려 올렸다고 하니 그 규모가 현대인의 상상 이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송시열은 혼인을 앞둔 자신의 딸을 위해 시집가서 지켜야 할 도리를 구구절절 적은 <계녀서>를 건네주었는데, 그중 힘주어 강조한 것이 바로 손님 접대였다.

“음식 잘하여 대접하고 실과나 술이나 있는 대로 대접하되, 손님이 잘 먹지 못하여도 박대요, (중략) 손이 아니 오면 가문이 자연히 무식하고 남편과 자식이 주인 노릇을 할 리가 없을 것이니 부디 손님 대접을 극진하게 하여라.”

손님에 대한 마음 씀씀이에 가문의 품격이 반영되다

손님이 왔을 때 안주인이 내온 상차림의 수준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그 회합의 분위기와 성공 여부가 달라지기도 했다. 안주인의 정성이 가득 담긴 빼어난 음식 솜씨는 손님의 마음마저 움직일 수 있었고 그에 따라 남자들의 친화력과 결속력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나아가 그 가문에 대한 평판이 결정되었다. 요즘 사람들이 귀한 손님을 고급 음식점에서 대접하는 것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사랑방을 찾는 손님이 끊긴다는 것은 곧 그 집안이 망하는 것과도 같은 의미였고 어느 집안에 갔더니 손님 접대가 박하더라는 평이 나오는 것은 곧 그 가문의 수준이 어떻더라는 평가로 직결되었다. 가세가 기울어 살림이 넉넉하지 못한 경우에는 안주인이 손님 접대 주안상을 마련하기 위해 패물을 팔거나 심지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손님이 잠깐 머물고 가든, 혹은 몇 달을 기거하든, 일단 대문 안으



위 남자들만의 사회생활 전반기 이루어지는 사랑방에는 문방사우를 그린 책가도 병풍 혹은 가리개가 필수품이었다. 장서문구도 2폭 가리개. 모두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아래 사랑방과는 달리 여인들의 접대 공간인 안채에는 진기한 그릇이나 꽃, 과일, 화초, 채소 등을 짜임새 있게 그린 병풍이나 가리개로 장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기명절지도 2폭 가리개. 모두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는 일생을 연결해서 그린 그림인 <평생도>에는 잔치가 빠질 수 없다. 돌, 혼인, 회갑 등 다양한 손님맞이에 대한 단상을 그림으로 엮볼 수 있다. 작자 미상, 평생도 모두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로 발을 들인 손님에 대해서는 마치 자기 집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끼도록 다과와 음식에서부터 난방, 이부자리, 옷가지까지 정성을 다했다. 손님이 장기간을 머문다 해도 숙식비 등을 일절 받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그래서 사대부 집안의 여인들은 손님 접대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했는데 이는 그 집안의 가풍과 인심, 베풀의 정신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어떤 집안에서는 매 끼니 밥을 지을 때도 식구 수만큼이 아니라 최소 세 사람 분량의 밥을 더 지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손님이나 배고픈 나그네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여기기도 했다. 집촌의 형태로 여러 가구가 모여 있는 집안에서는 손님이 갑자기 몰릴 경우 긴밀히 협조하여 손님들을 다른 집으로 분산시켜 대접하기도 했다.

손님 상차림에서 엿보는 조선 시대 음식문화

손님이 방문한 시각과 머무는 시간에 따라 차와 다식을 내기도 하고 식사와 술상을 대접하기도 했을 터. 그중 다도는 조선 시대 선비들의 가장 기본적인 교양이기도 했기에, 안주인은 평소 녹차에서부터 연꽃, 매화, 목련 등으로 만든 꽃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차를 준

비해두었다. 특히 차와 곁들여 내는 다식에는 옛 여인들의 솜씨와 정성, 미적 감각이 집약되었는데, 16세기에 안동의 선비가 지은 유서 깊은 조리서 <수운잡방>에 이미 다식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때깔 고운 송화다식을 만들기 위해 여인들은 소나무의 노란 수꽃 봉오리를 말려 물에 띄우고, 물에 뜬 꽃가루에 한지를 덮어 묻어나게 하고, 그 한지를 다시 말려 가루를 얻어 풀이나 조청으로 반죽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여성이 쓴 조리서이자 최초의 한글 조리서이기도 한 17세기의 <음식디미방>에는 다식을 구울 때 수키와 위에 다식을 놓고 암키와를 덮은 후 솥으로 서서히 구웠다고 나온다. 직접 수놓아 만든 정갈한 무명 상보를 덮어 송화, 콩가루, 흑임자 등을 넣은 색색의 다식과 떡, 단자 등을 곁들여 찬상을 내가는 순간 사랑방에는 향기와 훈기가 감돌았다.

손님 접대를 잘하기 위해서는 식사와 주안상 차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소리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방문하자 춘향 어머니가 상을 차려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묘사가 가히 압권이다. “제육찜, 풀풀 튀는 송어찜, 포도동 나는 메추리 순탕에 울산의 대전복을 대모장도 드는 칼로 맹상군의 눈썹 채로 어숙비숙 오려놓고, 염통산적, 양복음과 춘치자명 생치 다리, 적벽대접 분원기에 냉면조차 비벼놓고 (중략) 향기로운 연엽주를 골라내어...”. 상다리가 휘어질 듯한 대접에 이몽룡이 놀라자 춘향의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한다. “사랑에 노는 손님 영웅 호걸 문장들과 죽마고우 벗님네 주야로 즐기실 제, 내당의 하인 불러 밥상 술상 재촉할 제, 보고 배우지 못하고는 어이 곧 등대하리. 내자가 불민하면 가장 낮을 깎임이라.” 비록 허구의 이야기로서 과장이 섞여 있다고는 하나, ‘내자가 불민하면 낮을 깎인다’는 말에서 옛 여인들이 사랑방 손님 접대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대비하려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19세기 어느 양반가의 할머니가 시집갈 손녀를 위해 한글로 써준 <음식법>이라는 책에도 손님 접대 상차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손님상의 대표 메뉴인 신선로 즉 열구자탕 만드는 법부터 어떤 음식을 어떤 순서로 내야 하는지 세심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먼저 술과 간단한 찜, 마른안주, 나박김치를 낸 후에 열구자탕과 느르미(재료를 익혀 즙을 끼얹은 음식), 전, 어만두 등을 내며 그 후에 국수를 내어 열구자탕기에 끓여 뜨게 하라는 내용 등 어린 손녀가 시집가서 손님상을 차릴 때 헤매지 않게 해주려는 할머니의 애뜻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다. 안주인의 지혜와 솜씨를 발휘해야 하는 손님 상차림에는 그 집안만의 전통적인 손

맛과 품격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음식문화를 형성했다. 지역에 따른 식재료와 식습관이 반영되었는데 특히 만두나 국수는 귀한 손님 대접에 빠지지 않는 메뉴이기도 했다.

정성 들여 빚은 가양주, 안주인의 손길과 마음을 담다

인조 때의 양반가 부인 남평 조씨가 한글로 쓴 <병자일기> 중에는 “이현 승지와 임판사가 와서 술을 석 잔씩 잡숫고 어두워질 무렵에 권집 의가 와서 술을 여섯 잔씩 잡수셨다” “식사 후에 사직골 이판서 댁에 가서서 취하여 어둡게야 들어오셨다” 같은 대목이 나온다. 남자들의 사랑방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술이었고, 이러한 술을 늘 빚어놓았다가 대접하는 것 역시 안주인의 몫이었다. 조선 시대 양반가에서는 집에서 손수 빚은 가양주야말로 봉제사 접빈객의 핵심이자 그 집안의 수준과 체통을 보여준다고 여겼다. <음식디미방>에서도 가양주를 가장 중시해 술 담그는 법이 50여 가지나 소개되어 있다.

직접 채취한 오가피나무 껍질로 빚은 오가피주와 멧잎으로 만든 아름다운 색깔의 죽엽주 등은 건강에 좋은 약용주이기도 했다. 복숭이꽃으로 만든 도화주에는 선비의 풍류 정신이 깃들어 있어 마치 한 잔 술에 무릉도원에 도달한 듯한 아취를 느끼게 했고, 가을이 오면 집집마다 향기로운 국화주를 담가두었다가 특별한 손님을 대접할 때 반드시 상에 올렸다. 5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것으로 추정되는 연엽주는 연잎에 누룩가루를 포개 익혀 만드는 조선 시대의 대표적 가양주의 하나인데, 충남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아산의 연엽주는 조선 말 고종 황제에게도 올린 술이다. 그 당시 임금에게 대접하는 약주라 하여 특별히 더 정성을 쏟았는데, 술 담글 때는 길일을 잡고, 술독의 방향을 정하고, 하늘의 기운이 가장 성한 자정에 받아낸 이슬을 사용했다. 그뿐만 아니라 흑시나 침 한 방울이라도 뿔까봐 입에 창호지를 물고 담그는 등 극진한 정성을 다했다고 한다.

조선 시대 여성에게 사회적 제약이 가해졌던 것은 사실이나 그녀들이 맡은 임무는 음식 만들고 살림하는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다. 옛사람들의 격조 높은 손님 접대 문화는 궁극적으로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기고자 한 마음의 실천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여인들의 손끝에서 맛깔스러운 다담상으로, 향기로운 가양주로 승화되었다. S

에디터 유수아 글 **한성아** **참고 문헌** <조용헌의 소설>(조용헌, 랜덤하우스코리아), <조선 양반의 일상>(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글항아리), <한국 식생활 문화>(윤서석, 신광출판사), <의식주, 살아있는 조선의 풍경>(한국고문서학회, 역사비평사), <중가 이야기>(이연자, 컬처라인)

사랑방에서 손님을 맞다

선조들의 손님맞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손님을 위한 그릇을 따로 준비하기 위해 유기그릇에 윤기를 내는 것부터 잠자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부자리를 챙기고, 방의 온기와 향 같은 세심한 것까지 정성을 다했다. 떠나는 이의 손에는 선물 보따리를 들려 보냈던 어머니의 마음과도 같은 삼월의 풍경 속으로.

에디터 유수아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어시스턴트 손예희, 윤숙희 도움 주신 곳 락고재(02-742-3410), 담연(02-546-6464), 오부자(02-2093-7667), 금단چه(02-517-7243), 후기(051-890-2851)





머무르는 곳은 단정하게

일반적으로 사랑방은 남자들이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인이 손님으로 방문한 경우엔 안채로 맞아들였다. 손님이 드나드는 공간은 항상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함으로써 소소한 부분에서부터 그 집안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애썼다.
비단과 가족이 어우러진 당혜는 담연.



손님을 위한 치마저고리를 내다

조선 시대 여인들은 혼인 이후 다른 곳에 머무르는 경우가 흔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혹여라도 다른 곳에 방문해 하루라도 목계 되면 낯설고 불편했으리라. 머무를 공간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치마와 저고리는 손님을 배려한 안주인의 정성 어린 손길이 느껴진다. 보랏빛이 감도는 치마와 저고리는 금단제, 이불과요, 베개는 모두 담연.



상차림에 격을 올리다

유기그릇은 세심한 관리는 물론, 뛰어난 저장성 덕분에 손님에 대한 격식과 예의를 갖추었음을 안주인이 식사를 대접하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손님맞이할 날이 정해지면 유기그릇에 윤기를 내느라 여인들의 손놀림은 바쁘기만 했다. 특히 내 집이 아닌 낯선 곳에서의 식사인지라 더욱 입맛에 맞추느라 정성과 솜씨를 다했는데, 그중에서도 기본은 음식의 맛과 색이 있어 음양오행 사상이 반영된 반상 차림이었다.

유기그릇 반상기는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전수 조교 이점술 작품으로 오부자, 소반은 금단제.



편안한 잠자리를 살피다

조선 시대엔 응접용으로 안석, 보료, 망석 등을 준비하고, 잠자리를 위해서는 손님만을 위한 이불과 요, 베개를 따로 마련했다. 남자용으로는 자주나 적색, 감색 등을 사용했으며, 여성용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빛깔을 선호했다. 비록 낮은 공간일지라도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은은한 향을 베개 밑에 넣기도 했다.

개나리색과 감귤빛이 어우러져 봄 분위기가 완연한 이불과 요, 베개 세트는 담연





보자기에 선물을 고이 싸다

손님이 가실 때 빈손으로 보내는 것은 선조들의 정서와 맞지 않았다. 먹을 것이 귀했던 당시 먹거리는 물론, 사랑방에 머무른 선비를 위한 문방사우 등 무엇이든 선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야말로 후한 인심의 미덕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선물을 곱게 싼 색색의 보자기는 모두 후가.

한옥에서의 하룻밤으로 과거를 여행하다

과학적으로도 우수성이 입증된 한옥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 상품이다. 한옥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에 매료된 사람들이 너도나도 한옥을 찾고, 한옥을 지어 살고 있지 않은가. 그 이유는 한옥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한옥에서 직접 머무르며 선조들의 하루를 그대로 체험하는 고택 체험 여행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한옥이라는 거주 공간을 통해 과거 여행을 할 수 있는 고택 체험 여행은 손님에 대한 대접을 통해 선조들의 의식주 생활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이 될 것이다.

지금은 별세한 충남 무형문화재 대목장 정영진 옹에 의해 완성된 락고재 서울은 '옛것을 누리는 맑고 편안한 마음이 절로 드는 곳'이라는 뜻을 지닌 아담하고 정결한 한옥이다. 전통 기와, 담장, 정자, 굴뚝, 장독대 등이 소나무와 함께 파란 하늘을 벗 삼아 한옥의 미학을 보여주고 있다. 솟을대문을 지나면 보이는 장독대를 거쳐, 방문 너머 보이는 소나무와 대나무가 계절의 향취를 풍기고 댓돌 위에 소담하게 놓인 고무신이 정겨움을 더한다. 마당을 중심으로 ㅁ자 형으로 지어진 락고재는 지난날 선비들이 즐겼던 정자와 연못, 대청마루 등 한옥이 지닌 여백과 미학적 가치를 경험하기에 충분하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안동하회마을에 위치한 락고재 하회 체험 여행은 부용대, 병산서원과 하회마을 탐방 등이 연계되어 우리의 정신문화를 들여다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화 체험의 일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통 다도 체험을 비롯해 한방 의료 서비스, 궁중 한복 촬영, 김치 담그기, 판소리&가야금 공연 등은 단순히 하룻밤을 한옥에서 머무른다는 개념을 넘어 우리 문화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데 일조할 것이다.

사대부 집안일수록 안주인들은 손님 접대에 부족함이 없도록 애썼는데, 이는 그 집안의 가풍이나 인심, 그리고 베풀의 정신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극한 정성과 세심한 배려로 맞이하는 손님 접대 문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선조들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한옥에서의 하룻밤은 이러한 손님맛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외국에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참미미를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S

문의 락고재 서울(02-742-3410), 락고재 하회마을(054-857-3410)

한옥 체험을 할 수 있는 곳

아름지기 함양한옥(02-741-8373), 북촌한옥체험관(02-743-8530), 남산골 한옥마을(02-2264-4412), 고성 왕곡마을(033-631-2120), 삼척 너와마을(033-552-1659)



淸

雪花秀

기미 방어력을 키우는 강력한 인삼미백 설화수 자정스팟에센스

빛과 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피부는 면역력이 떨어져 기미와 잡티가 잘 번지는 피부환경으로 바뀝니다. 자정스팟에센스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기미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인삼의 미백성분을 적용하여 피부환경을 개선하고 기미 방어력을 키워줍니다. 끈질긴 기미를 이겨내는 피부의 힘을 직접 느껴보십시오.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자정스팟에센스

Sulwha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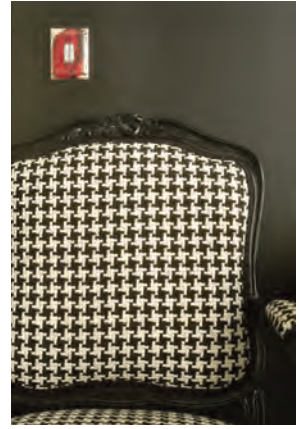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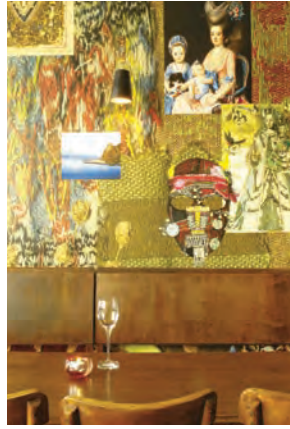


NEW



피부온난화 다큐멘타리를 통해 화이트닝의 진실을 확인해보세요

· 유명백화점이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 www.sulwhasoo.co.kr · www.facebook.com/sulwhasookorea · 고객센터 :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



크리스찬 라크르와의 감각적 세계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는 17개의 객실과 로비. 파리의 프티 물랭(Petit Moulin) 호텔은 마레 지구의 옛 정취를 재현하는 것을 넘어 한 패션 디자이너의 화려한 오트쿠튀르의 세계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위로 확장시켰다.



드라마틱한 실크스크린 프린팅, 인디아 마하다비(India Mahdave) 테이블과 소파, "영감의 퍼즐 속에서 조화가 창조되며 과거의 요소들로 시대의 분위기가 살아나는 오트쿠튀르에서와 같은 믹스매치를 보여줄 것"이라 말하던 크리스찬 라크루와 의 디자인 콘셉트가 존재하는 공간.



17세기 스타일의 계단, 카키색 벽과 물방울무늬 카펫이 눈길을 끄는 로비. 옛 시대의 테피스트리(여러 가지 색실로 그림을 짜 넣은 직물)를 연상케 하는 대형 실크스크린 프린팅. 고풍스러운 목재, 몬드리안 화풍으로 꾸며진 벽, 디자이너 피에르 폴랭(Pierre Paulin)이 디자인한 의자들이 어우러져 있는 바(Bar). 파리의 프티 물랭 호텔은 파리 마레(Marais) 지구의 중심지에 위치한 우아한 휴식처이며, 파리의 패션 디자이너 크리스찬 라크르와가 매력적인 스타일과 모던한 정신, 화려한 외관으로 꾸민 17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나에게 스타일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다시 발견하는 감정이다”라고 말했던, 1950년대의 날카로운 사회 비평 칼럼니스트 필립 줄리앙(Philippe Jullian)이 오늘날 이 호텔을 방문했다면 자신의 칼럼 한 페이지를 크리스찬 라크르와의 스타일에 가까이 할애했을 것이다.

프티 물랭 호텔은 쟈 스타일의 냉랭한 호텔 분위기와도, 도심 리조트의 일반적인 현대적 이미지와도 다르며, 궁전풍의 네오 베르사이유 스타일과도 다른 독보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건축가 그룹 바스티(Bastie)가 작업한 호텔의 공간 구조는 작은 건물 2채와 사이 공간이 독창적으로 짜임새 있게 연결되어 마레 지구의 유명하고 오래된 베이커리와도 연결될 수 있도록 개조되었다.

형식과 시대, 소재와 컬러를 결합시킨 예술 세계를 가지고 있는 패션 디자이너 크리스찬 라크르와. 그가 태어난 프로방스 지방은 늘 그에게 관능적인 소재와 색채의 충격에 대한 감각을 고취시켰다. 그가 옛것에 얽매이지 않고 거리낌 없이 채택하는 현대적인 톤은 언제나 수공업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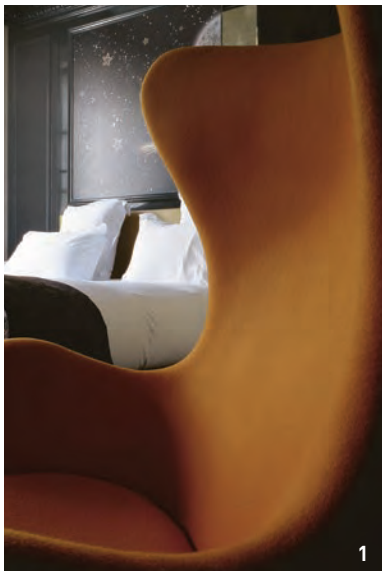
3



4

1, 2 크리스찬 라크르와의 사인과 그의 오토쿠튀르 컬렉션의 드로잉들로 채워진 자유롭고 열정적인 월페이퍼.
3, 4 인테리어 액세서리처럼 작업된 전기 스위치와 마리 메코(Marimekko)의 물방울무늬 월페이퍼, 침대 커버, 블랙 앤 화이트의 감각적인 조화.

1 룸 301호, 우주의 서사시가 가득한 공간, 그리고 아르네 야콥센(Arne Jacobsen)의 오렌지색 의자. 2 열정적인 색감이 돋보이는 욕실. 3 “나는 지중해 사람이다. 엄격함과 현란함, 바로크와 클래식, 블랙과 컬러, 과거에 대한 애정과 미래에 대한 열정이 섞여 있는, 남부는 역설적이다”라고 했던 크리스찬 라크르와, 그가 좋아하는 꽃이며, 그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불어넣어준 프랑스 남부의 상징인 카네이션으로 뒤덮인 룸. 4 화려하고 관능적인 크리스찬 라크르와 스타일의 장밋빛 벽지가 아름답다.



1



2



3

전통, 옛 시대의 가치들과 혼합되어 나타난다. 그런 그에게 있어 프티 물랭 호텔의 실내장식을 한다는 것은 과거가 새겨져 있는 공간에 독특하면서도 열정적인 자신의 오토쿠튀르 세계를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였다.

프티 물랭 호텔의 실내장식 작업을 하면서 그가 중요한 목표로 세운 것은 동시대적인 예술의 분위기를 맞추면서도 정취 그윽한 옛 파리를 간직하고 있는 마레 지구의 모습을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것이었다. 로비의 천장을 가로지르는 무라노(Murano) 상들리에에서 묻어나는 베네치아 분위기, 공쿠르(Goncourt) 형제 시대의 장식 주름 커튼이 길게 드리워진 바닥에 깔려풀한 단추처럼 놓여 있는 인디아 마흐다비(India Mahdavi) 테이블들, 루이 15세 시대의 안락의자, 1962년에 카스티글리오니(Castiglioni)가 디자인한 프랑스 제1제정 시대의 아코(Arco) 쉼대, 에로 샤리넨(Eero Saarinen)이 디자인한 의자 등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스타일과 각 시대의 이국적인 취향이 듬뿍 묻어나는 객실이 그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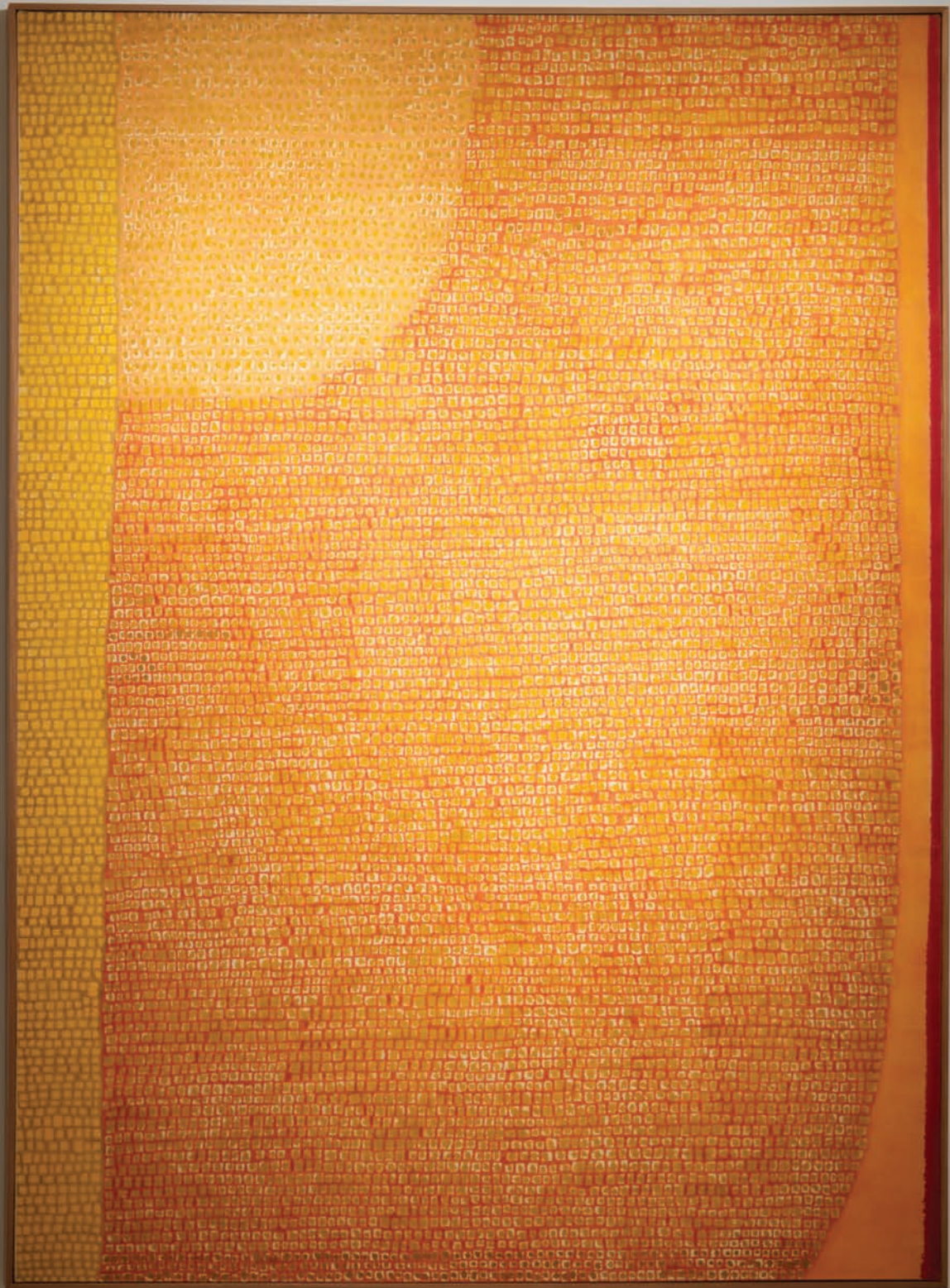
쇼킹한 장밋빛 벽에 두른 레이스 프린팅, 귀부인의 침실을 테마로 현대적으로 변용한 마녀 거울과 카펫이 어우러진 화려한 객실, 꿈에 젖게 하는 옛 시대의 가치들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다양한 추억을 자신만의 세계에 불어넣어 익숙한 동시에 완벽하게 새로운 파리의 모습을 탄생시킨 크리스찬 라크르와의 예술 DNA를 만나볼 수 있는 곳, 바로 프티 물랭 호텔이다. S

에디터 문비송 글 즈느비에브 도타낙(Geneviève Dortignac) 사진 프랑스와 구디에(François Goudier)



하늘과 달과 항아리를 사랑한 한국 미술사의 거장 김환기

한파가 유독 매서웠던 연초 두 달간,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김환기전>이 열린 갤러리현대의
본관, 신관 두 전시장에는 연일 관람객이 북적였다. 내년으로 다가온 김환기 탄생
100주년에 앞서 개최된 대규모 전시회. 20세기 한국 미술사에서 가장 멋진 삶을 살다 간
그의 걸작들은 보고 또 보아도 가슴 뭉클하고 아름다웠다.



김환기의 후기작은 점을 찍고 네모난 테두리를 두른 것을 화폭 전체로 확장시킨 '점화'가 주를 이룬다. 캔버스가 아닌 코튼 위에 신비롭게 번지는 기법은 동양화적 느낌을 자아내며 점, 선, 면 분할을 통한 철학적 주제가 극대화된다. 무제 12-70-70 #172, 1970. Oil on Cotton, 236×173cm.



“세계적이기에는 가장 민족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전시가 시작되고 나서 첫 주말에만 하루 1,000여 명, 한 달 후엔 2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전시 기간 중 두 차례 열린 유흥준의 특강에는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전라도 신안의 김환기 생가 답사는 일찌감치 신청이 마감되었다. 김환기의 작품이 환기미술관에 많이 있을 거라는 짐작과 달리 대다수의 작품들은 개인 소장품이라, 갤러리 측에서 소장가들을 설득하고 작품들을 모으는 데만 1년이 걸렸다. 대표작들과 미공개작까지 60여 점의 그림이 전시된 이번 전시는 그래서 미술 애호가들에게 귀한 선물 같았다.

‘한국의 피카소’니, 박수근, 이중섭, 장욱진과 더불어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대표적 화가니 하는 수식어들이 아무리 익숙하다 하더라도, 김환기의 작품을 실제로 접한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말 그대로 낮이 나가는 듯한 경험을 한다. 그림의 주조를 이루는 푸른빛을 보고 있노라면 심장이 찌르르한 아련함, 형언할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것이 느껴진다. 이는 피카소 같은 서양의 유화들을 봤을 때와 전혀 다른 미감으로, “내 그림은 한국 사람의 그림일 수밖에 없다. 세계적이기에는 가장 민족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예술이란 강력한 민족의 노래인 것 같다”는 명언을 남긴 김환기의 예술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둥근 하늘과 둥근 항아리와/ 푸른 하늘과 흰 항아리와”

연대순에 따라 본관에는 초기작인 1930년대부터의 구상 작품들, 신관에는 1960년대에서 작고하기 전까지의 추상 작품들 위주로 걸렸다. 김환기의 작품 세계는 일본에서 미술을 배우고 온 후의 초창기, 1956년 파리 거주 시절, 1959년 귀국 후 다시 서울, 1963년 나이 선이 넘어 뉴욕으로 간 후 1974년 작고하기 전까지 11년 등 거주지 변화와 맞물리며 구분된다. 본관의 구상 작품들이 백자 항아리, 산과 구름과 달, 매화와 학, 십장생 같은 전통적 소재들을 그린 것이라면, 후기로 갈수록 이 주제들이 단순화, 추상화되다 마침내 공기, 바람, 메아리, 우주를 아우르는 점과 선의 철학적 세계로 승화되었다.

미술사학자 윤난지 교수가 “그림을 그리며 글을 쓴 옛 문인화가들의 후예”라 일컬은 것처럼 김환기는 화가이자 시인이기도 했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냈던 고 최순우와의 우정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문화에 대한 애착과 감식안이 뛰어난 예인이었다. 김환기는 작고하기 얼마 전 최순우의 꿈을 꾸고 일기에 기록했을 정도로 두 사람의 교감과 서로에 대한 존경심은 남달랐다. 김환기는 “글을 쓰다가 막히면 옆에 놓아둔 크고 잘생긴 백자 항아리의 궁둥이를 어루만지면 글이 저절로 풀린다”고 할 정도로 백자를 사랑했고, 최순우는 이런 그에 대해 “한국의 멋을 폭넓게 창조해내고 멋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참으로 귀한 예술가” “조선의 목공이나 백자의 참맛을 아는 귀한 눈의 소유자”라고 평하며 “그가 긴 목을 빼고 꺾청거리며 학춤을 춘다든지 장구통을 메고 목청을 뽑아 ‘박연폭포’를 부르게 되면 나는 더없이 즐거웠다”고 추억했다.

지인이었던 미술 평론가 이정성도 1950년대 김환기의 성북동 집을 방문한 후 “대청이나 뒷마루에는 물론 방 구석구석마다 잘생긴 백자 항아리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내 눈에는 마치 백자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보였다”고 기록했다. 김환기가 시를 통해 “둥근 하늘과



1950년대 작품에는 백자 항아리, 매화, 구름, 여인 등 한국의 전통적인 소재가 즐겨 그려졌다. (귀로는 그동안 미공개작이었던 작품으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최초로 전시되었다.)

- 1 항아리와 여인들, 1951, Oil on Canvas, 54×120cm.
 - 2 백자와 꽃, 1949, Oil on Canvas, 41×61cm.
 - 3 항아리와 매화, 1958, Oil on Canvas, 39×56cm.
 - 4 귀로, 1950년대, Oil on Canvas, 98×79cm.
- 2, 3, 4 모두 환기미술관 제공.



1

1 뉴욕으로 건너가 그린 작품들에서는 형태가 더욱 추상화 된다. 그러나 그림 속 '제기'의 형상이라든가 늘 즐겨 쓰던 푸른색 색조를 통해, 작품 세계가 변모했다기보다는 더욱 깊어지고 철학적으로 승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2 평생 즐겨 그린 달과 항아리에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사랑, 고국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배어 있다. 3 평생의 벗이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준 아내 김향인과 김환기.

둥근 항아리와 / 푸른 하늘과 흰 항아리와 / 틀림없는 한 쌍이다 / 똑 / 닭이 알을 낳듯이 / 사람의 손에서 쏙 빠진 항아리다”라고 노래한 구절은 그가 화폭을 통해 꿈꾼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내가 찍은 점, 저 총총히 빛나는 별만큼이나 했을까”

“저렇게 많은 별 중에서 /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 밤이 깊을수록 /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 이렇게 정다운 / 너 하나 나 하나는 / 어디서 무엇이 되어 / 다시 만나랴.”

김광섭이 1969년에 발표한 시 ‘저녁에’에서 영감을 받은 김환기는 1970년 마지막 구절에서 제목을 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는 역작으로 미술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김환기의 후기작들은 점을 찍고 테두리를 에워싼 이른바 ‘점화’가 주를 이루는데 작품 크기 자체가 압도적인 대작이 많다. 점들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한지에 먹이 번진 듯 오묘하고, 그림에서 물러나 전체를 조망하면 은하수 흐르는 우주의 한 자락, 혹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무수한 인간 군상이 연상되어 신비로운 감흥에 빠진다.

이는 “오랜 서양화 기법의 연마 끝에 다다른 동양의 수묵화적 느낌”(서울대 교수 김영나), “광목이나 종이에 칠했을 때 번지는 운연의 효과”를 통한 “위대한 단순화, 고귀한 정밀”(미술 평론가 이경성)이며, “부딪치고 헤어지는 수많은 인연들을 하나하나의 점으로 새겨간 작품”이자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 또는 끊임없이 거듭나는 세포들을 그린 것 같은,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우주적 윤회를 시각화”(이화여대 교수 윤난지)한 것으로 회자된다.



“예술은 하늘, 산, 그리고 돌처럼 그저 존재할 뿐”

이러한 작품들을 위해 김환기는 하루 16시간씩 작업에 몰입했다. “내가 종신수임을 깨닫곤 한다”는 일기를 쓰면서도 “빠꾸기 노래를 생각하며 종일 푸른 점을 찍었다”며 “내가 그리는 선, 하늘 끝에 더 갔을까, 내가 찍은 점, 저 충충히 빛나는 별만큼이나 했을까. 눈을 감으면 환히 보이는 무지개보다 더 환해지는 우리 강산”이라고 토로했다. 미술 평론가 오광수는 “그가 찍어나가는 점, 그가 그려나가는 선,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움”이라 설명한다.

“예술은 하늘, 산, 그리고 돌처럼 그저 존재할 뿐이다”라는 말을 남긴 김환기는 아직 한창 더 활동할 60대 초반의 나이에 뉴욕에서 뇌출혈로 작고했다. “우리는 반생을 강아지처럼 살아왔다. 송능을 들고 온 아내의 손을 보면 옛날의 손이 아니다. (중략) 우리도 늙어나 보다. 노부부가 그림을 그리고, 소설을 쓰고, 다시 센치해진다”라고 쓴 1952년의 글에서 알 수 있듯 부부 금실이 각별한 것으로도 유명했는데, 그의 평생의 벗이자 비서이며 안식처였던 아내 김향안은 그 후에도 수필가, 미술 평론가, 화가로 활동하며 환기재단과 환기미술관 설립을 이끌었다.

김환기의 푸른빛은 한민족의 쪽빛이요, 동해 바다 색깔이요, 하늘의 색이었다. 청송이 아름답고 봄이면 처녀들이 산나물을 캐던 고향 섬마을을 늘 그리워하며 백자의 순백과 쪽빛 하늘을 심장에 품은 채 우주와 교감한 예인. 어디서 무엇으로 다시 만날지 모를 무수한 인연이 그의 아름다운 작품들 앞에서 오래도록 머물렀다. S

에디터 문비송 글 한성아 사진 이종근





조선의 전통과 서양의 현대가 만나다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는 서로 상반되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미학적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상생의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과 서양의 트렌드가 함께 만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에디터 유수아 스타일리스트 서영희 사진 이상선 도움 주신 곳 온양민속박물관(041-542-6011), 에르메스(02-3015-3233)



예나 지금이나 신으로 멋을 부리다

조선 시대에도 남성이나 여성이나 신에 대한 애착은 대단했던 모양이다. 다양한 가죽이 신의 소재로 활용되었는데, 가죽이 귀하고 가치가 폭등하자 신에 따라 신분의 차이가 드러나기도 했다. 조선 시대 문무 관리들이 관복을 입을 때 신던 목화는 가장자리의 선 장식이 현대적 미감으로 다가온다. 조선 시대 목화는 온양민속박물관 승마용 부츠는 예르메스

안강으로 품격을 드러내다

고려 시대에는 오직 왕만이 금과 옥으로 말안장을 장식할 수 있었고, 조선 시대에는 3품 당상관 이상은 상어 가죽, 그 이하는 사슴뿔로만 장식할 수 있었다고 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말안장 앞에 양쪽으로 걸치는 안강 역시 실용적인 도구를 넘어 말에 오르는 이의 신분을 드러내는 일종의 위계품이었다. (왼쪽) 쇠가죽에 낫쇠로 만든 잠금장치를 부착한 안강은 온양민속박물관 말 인형과 송이저기죽 목 끈은 예르메스



시대를 초월하는 문양의 미학

문양이야말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다. 동양과 서양의 구분도, 과거와 현재의 구분도 무의미할 정도로 문양의 아름다움은 동서양과 시대를 넘나든다. 전통적인 목기구에 서양의 테이블웨어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일 것이다. 반찬과 술안주를 담는 주안함은 온양민속박물관 청자 패턴을 모던하게 표현한 테이블웨어는 모두 에르메스.



서양에 목걸이가 있다면 조선 여인에게서는 노리개가 있다

조선 시대 여인은 서양 여인이 쇠골 위에 목걸이를 얹어 한껏 멋을 냈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치맛자락 사이로 언뜻 보이는 노리개를 비롯해 시집갈 때 친정에서 마련해주던 열쇠패, 오색 천 가락에 줄줄이 꿰어 달아놓는 동전과 별전 등은 여인의 비밀스러운 소품이었다. 열쇠패와 별전은 모두 온양민속박물관, 쇠빨을 사각 프레임으로 다듬어 제작한 목걸이는 에르메스.



서양식 두루마기를 입고 가마를 타다

여인이 외출할 때 입던 두루마기는 서양으로 따지면 솔이나 판초 같은 기능을 지니고 있다. 두루마기를 걸치고 가마 타고 꽃놀이 가던 규방 여인의 가마 장식에는 다양한 문양이 사용되었다. 비단 바탕에 수를 놓은 끈은 가마에 장식하는 것으로 온양민속박물관 가족 태슬이 장식된 승마용 판초는 에르메스.



팔에 장식하는 소품

팔에 사용하는 것은 같으나 서양의 뱅글은 아름다움을 위함이고, 우리의 전통 팔토시는 여름에 속옷 아래 착용하면 바람이 솔솔 통해 시원한 여름을 지낼 수 있었다. 팔토시 형상을 현대적인 팔찌로 승화해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 팔토시는 모두 온양민속박물관, 에나멜과 나무 소재의 뱅글은 모두 에르메스.



머리위에 모자를 쓰다

선비에게 갓이 있다면, 신사에게는 페도라가 존재했다. 하지만 선비의 모자보다도 더 주목할 만한 모자는 농악대의 총지휘자인 상쇠가 사용하는 상쇠 모자. 벗짚을 잘 짜서 만든 것으로 꼭대기에 종이 수술을 달아 상쇠가 상모를 돌릴 때 착용했다. 상모를 돌릴 때 사용하는 상쇠 모자는 온양민속박물관 양가죽 밴드의 클래식한 모자는 에르메스.



모든 선물이 담긴 함을 간직하다

서양에 '판도라의 상자'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함이 있다. 글에서부터
기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물'이 들어간 함과 나들이 갈 때 음식을 담은 찬함 등은
뚜껑을 여는 순간 전해지는 기쁨과 감동을 모두 담고 있다.
위의 고리버들로 만든 도시락과 아래의 편죽 상자는 모두 온양민속박물관, 고리버들과
송이치 가족으로 제작된 핸드메이드 바스켓 백은 에르메스.

대물림의 세계를 매듭지어온 장인 일가

살다 보면 대인 관계가 됐든 일이 됐든 ‘매듭’을 잘 엮고 풀어야 한다는 걸 절감하게 된다. 여기, 그 매듭을 숙명으로 알고 대물림한 일가가 있다. 지난해 제5회 설화문화전 ‘가설의 정원(假說의 庭園)’에 자신의 작품 ‘매듭 노리개’를 선보인 박선경(전수 조교), 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정봉섭의 맏딸인 그와 함께 한국 전통 매듭의 세계로 떠나보자.





장인가의 대물림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혹독한 장인의 길을 선뜻 나서는 이도 드물고, 믿고 맡길 사람도 마땅히 없기에 그 형극의 길은 피붙이의 몫이기 쉽다. 하지만 1대 매듭장 고 정연수 선생 일가의 대물림 방식은 특이하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선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정연수 선생이 매듭과 인연을 맺은 건 1919년 무렵, 광화문 일대였다고 한다. 당시 매듭 일을 하던 장인들이 모여 살던 광화문 근처에서 학교에 다니던 선생은 매듭 일을 하던 친구 아버지의 공방을 드나들다, 그만 매듭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남다른 솜씨와 애정을 보인 열일곱 살 소년은 친구 아버지의 눈에 들어 소소한 일감을 받기에 이르렀고, 그 길이 고희까지 이어지리라곤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매듭이라 하면, 언뜻 여성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실을 꼬고 잡아매어 여성의 장신구인 노리개를 만드는 일이 매듭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듭은 우리의 예상과 달리 남성의 전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고된 작업이었고, 그건 매듭의 대상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가마에도 매듭이 쓰였고, 영정이며 국새, 무기류 등에도 매듭은 반드시 필요한 공예품이었죠. 지금도 큰스님의 다비식을 보면 죽은 사람의 길을 인도한다는 뜻의 인로왕번(引路王幡)이란 글귀가 새겨진 큰 깃발이 등장합니다. 여기에도 역시 매듭이 들어갑니다. 사찰에서도 매듭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큰 술 혹은 매듭을 유소(流蘇)라고 했는데, 그 일을 하자면 손아귀 힘이 센 남성이 아니고서는 곤란했겠죠. 어린 시절 외조부님께서 큰 술을 만드시던 모습을 뵈 기억이 납니다. 할아버지께서 굵고 긴 실을 꼬고 계시면 철없던 제가 그걸 고무줄 삼아 놀던 기억이 나요.”

그랬다. 박선경 씨 일가의 대물림은 특별하게 외손으로 이어졌다. 초대 매듭장인 정연수 선생이 작고하자 곁에서 일손을 돕던 부인인 고 최은순 선생이 일을 이었고, 어머니마저 작고하자 맏딸(정봉섭)이 보유자가 되었고, 지금은 박선경 씨가 전수 조교로서 대를 잇고 있는 것.

공예란 무릇 우리네 일상에서 어떤 형태로든 소용될 때 그 값어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전통 공예는 시대 변화로 인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매듭이라고 사정이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매듭은 없어서는 안 되는 상류 계층의 필수품이었다. 궁궐에서는 더욱 그랬다. 그 증거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보면 도래매듭, 대차매듭 등 다양한 형태의 매듭이 임금의 주변을 장식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식은 신분의 고하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 방식이었다. 이때 화려함에 정점을 찍는 것이 바로 매듭이었던 것.

손바닥 크기의 호박이나 산호로 만든 왕비의 대삼작노리개는 지금 봐도, 그 화려함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하지만 그 아름답고 화려한 노리개는 매듭이 있어 비로소 완성된다. 매듭이 없다면 그건 그저 보석일 뿐이다. 전통 기본색인 오방색 실로 매화매듭, 잠자리매듭, 생쪽매듭 등 화려한 손기술로 만든 매듭이 보석을 감싸고 이어줄 때 노리개의 아름다움은 극치를 이룬다. 물론 매듭은 우리만의 전통은 아니다. 중국에도 일본에도 매듭의 전통은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매듭은 중국·일본과 다른 방식으로 진화했고, 노리개 문화는 거의 유일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서양인들은 화려한 보석을 머리에 올리고 목에 걸었다. 하지만 조선의 여인들은 목에 거는 단순한

아름답고 화려한 노리개는
매듭이 있어 비로소 완성된다.
매듭이 없다면 그건 그저 보석일
뿐이다. 전통 기본색인 오방색
실로 매화매듭, 잠자리매듭,
생쪽매듭 등 화려한 손기술로
만든 매듭이 보석을 감싸고
이어줄 때 노리개의 아름다움은
극치를 이룬다.

“매듭은 늘 어떤 물건의
보조적인 기능을 해요.
노리개도 그렇고 상여나
가마에서도 매듭은 주인공이
아니죠. 장식을 위한 수단일
따름이죠. 하지만 매듭이
없으면 치장이 완성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매듭의 매력이자 가치란
생각이 듭니다.”

선택에서 벗어나 보석을 옷에 다는 심미안을 보여주었다. 의복의 연장선에 보석을 놓은 것이다. 전혀 다른 방식의 연출이자 미적 안목이다. 그런 선택은 비교 대상을 허락하지 않는 한복의 빼어난 맵시로 이어졌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건 바로 매듭이 있었기 때문이다.

“매듭은 늘 어떤 물건의 보조적인 기능을 해요. 노리개도 그렇고 상여나 가마에서도 매듭은 주인공이 아니죠. 장식을 위한 수단일 따름이죠. 하지만 매듭이 없으면 치장이 완성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매듭의 매력이자 가치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네 일상의 중심에 있던 매듭이 사라진 것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란 비극적 근현대사 때문이었다. 자칫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끈을 이어준 사람이 바로 박선경 씨의 외조부인 정연수 선생이었고, 그 일가에 의해 지금 우리 앞에 전통 매듭이 온전할 수 있는 것이다.

전통 공예치고 그 공정이 까다롭지 않고, 고되지 않은 것은 없다. 오직 손품과 기다림, 노고가 뒤섞여야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게 전통 공예의 세계다. 그것도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전통 방식을 고수하자니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매듭도 다르지 않다. 실을 뽑고, 염색하고 꼬아서 쓰임새에 맞게 디자인하는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니 편한 것에 익숙한 요즘 사람들은 그 고생길을 마다하고 멀리한다. 그런데 그 고생길이 두 번에 걸쳐 친정어머니에게서 말팔로 이어졌다. 보통 적당한 거리감이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보다 격의 없는 친정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자칫 어긋나기 쉽다고들 한다. 그런 모한 애증의 관계에 놓인 그들은 과연 한국 전통 매듭의 비결을 어떻게 전수하고 대물림받았을까.

“어머니도 그러셨지만 저 역시 매듭은 특별한 일이 아닌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이었기에 전혀 거부감이 없었어요. 아마도 숙명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외조부님이야 당신께서 선택한 일이었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모두 운명처럼 매듭과 살아온 셈이죠.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심부름을 하며 익힌 매듭 일은 남의 것이 아닌 제 것이었고,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 봐야죠.”

가업인 측면도 있었지만 손재주와 긴 시간 앉아 몰입하는 차분한 성격은 이 집안의 내력이었던 모양이다. 그리고 그 내력은 박선경 씨 4남매 모두가 매듭과 연관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아무리 남편의 외조가 있었다고 해도 매일 친정으로 출근해 어머니와 함께 작업을 하는 것이 버겁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젊은 시절엔 어머니와 다른 판단을 해서 꾸중을 듣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 말씀이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장인의 엄격한 도제식 수업이 가족 간에 이뤄지면서도 자손 모두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남매간의 남다른 우애 때문이었으리라. 그런 점에서 박선경 씨 일가는 대물림을 한 장인의 집안 중에서도 각별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전통 공예의 보편적 아픔은 젊은 세대의 외면으로 전수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칫 전통 공예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한 분야가 적지 않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 매듭의 전통은 그럴 염려가 없어 보인다. 박선경 씨의 세 딸 중에 “내가 나중에 매듭장 보유자가 될 거야”라고 외치는 기특한 딸이 있다고 하니 말이다. S

에디터 최태원(프리랜서) 사진 박재형





한복 디자이너 이효재
효재의 살림을 엿보다

살림만큼 창조적인 일이 없다며, 입는 것, 먹는 것, 집 꾸미기까지 사소한 일상을 아름다움으로 만들어가는 이효재의 그릇 이야기.



1

서울 성북동 길상사 맞은편에 위치한 집의 안주인이자 <효재> 솥의 오너인 이효재에게는 많은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한복 디자이너, 작가, 보자기 아티스트, 창조적인 주부, 자연주의 살림꾼, 한국의 타샤 튜더(미국의 동화 작가이자 삽화가. 한 평생 방대하고도 아름다운 정원 속에서 살며 자연주의적 삶을 산 것으로 유명하다) 등.

그중에서도 반복되기 일췌인 주부의 삶을 창조적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무엇이든 매일 마주하다 보면 대상이 무엇이든 습관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 역시 그러하다. ‘살아가는 것’이지만 때론 ‘살아지는 것’이 되는 삶.

소박하고 정갈하며, 예스럽고도 현대적인 그녀의 모습은 ‘효재식’이라는 이름으로 효재식 살림살이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전 군인의 심정으로 살아요.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선 실제로 고된 훈련이 필요하죠. 쓰고 닦아내는 매일의 삶은 생각하기에 따라 고된 일이 될 수도 있고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를 성실하게 지켜낸 배짱이 나만의 고유한 것을 지켜내는 결과를 준 거예요.”

정원에 있는 잎을 떼어 그릇으로 삼는다든지, 작은 선물이라도 버려지는 포장지 대신 고운 보자기에 담아 보내는 환경친화적인 삶을 사는 그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을 순 없어요. 급하게 물 한 바가지 떠서 사용해야 할 때는 플라스틱 바가지가 가벼워 제격이죠. 하지만 화학적인 것은 최소한으로 사용하려 해요.”

그렇다면 효재의 그릇장은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을까.

“사람에겐 저마다의 취미가 있죠. 제 유일한 취미는 그릇 모으기예요. 무엇을 채워 넣으려 모으진 않았어요. 지금 있는 그릇들은 극실용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취향 덕에 꼭 필요한 제품만 골라내는 심미안으로 고른 것들이죠. 투박한 옹기에서부터 오후의 찻자리에 어울릴 앙증맞은 다관까지. 생활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템들이죠.”

마지막으로 30년을 살림해온 주부 9단으로서 갓 살림을 시작하는 초보 주부에게 꼭 사야 하는 살림살이 또는 그릇이 있다면 조언해 달라고 물었다.

“알아서 잘 사야죠(웃음). 정말이에요. 최근에 고려 시대 수저를 직접 사용해볼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의 수저와는 다르게 훌쩍하고 기다랗죠. 예전에 박물관에서 봤던 고려 수저는 굉장히 불편하고 쓸모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직접 만져보고 입에 넣어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먹어야 하는 지금의 수저와 달리 고려 시대 수저는 그 어떤 귀부인보다도 우아하게 식사할 수 있는 모양을 갖췄던 거예요. 하나의 수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데도 수십 년이 걸렸어요. 어떻게 제가 감히 그들의 삶에 맞는 살림살이를 추천하겠어요. 다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시작하는 살림살이 그릇은 ‘아무것’으로 시작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첫 그릇이잖아요.” 솔직하고 담백한 그녀의 대답만큼이나 실용적이되 착한 마음이 가득 찬 효재의 그릇장. 그곳엔 자연과 사람을 아끼며 삶을 성실하게 사랑하는 주부의 손길이 가득 묻어 있었다.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박재형



2



3

1 작가가 망쳤다고 둔 미차 찻잔. 붉은 우주에 초생달과 별이 새겨진 듯한 마음이 들어 아껴 사용하고 있다. 2 햇살이 드는 창가에 모아둔 찻잔들. 3 백자, 유기 등 다양한 그릇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다. 4 효재식 보자기 스타일링이 돋보이는 옹기.



4

성리학자, 사찰에서 휴식하고 교류하다

조선은 성리학의 땅이었다. 유교적 질서로 해가 뜨고 날이 저물었다. 궁궐에서는 유교식 장례 절차를 두고 폐가 갈려 사찰의 기로에 서야 했던 세상이었다. 그런 시절이었으니 '선비와 사찰'은 표면상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선의 사찰은 선비들에게 휴식을 선사한 안식처이자 학문의 교류가 빈번했던 장소이기도 했다.





1



2

1 명산대찰치고 좋은 나무 없는 곳이 없다지만 순천 선암사의 아름드리 나무들 역시 품모가 남 다르다. 어쩌면 이 산사를 거쳐 간 고승들의 환생은 아닐지. 2 장경각 뒤로 난 좁은 문을 지나 경내를 벗어나면 차나무가 손님을 반긴다. 문득 초의선사와 다산이 떠올라 잠시 상념에 젖게 된다. 3 선암사 중수비와 사적비가 보인다. 2기 모두 귀부 위에 비좌를 마련해 비신을 세우고 그 위에 이수를 올려놓는 전통을 따른 모습이다. 4 처마 끝에 달린 작은 풍경이 조계산에서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고 있다. 우리네 삶도 그런 것이 아닐까.

회재 이언적. 경주 양동마을에 집을 둔 그는 옥산서원 뒤편에 사랑채 격인 독락당(獨樂堂)을 짓고 은둔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독락당에서 걸어 5분 거리에 정혜사란 절이 있었고, 회재는 그 절의 어느 스님을 위해 독락당에 양진암이란 방을 들였다고 한다. 아마도 어린 시절 드나들며 공부했던 절의 스님을 위한 배려였지 싶다. 물론 이런 일이 비밀비재했던 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 인연 때문이 아니라 해도 조선의 선비가 극도로 혐오해야 마땅했던 사찰 혹은 승려들을 가까이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학문을 평생의 목표이자 목적으로 삼았던 선비는 늘 끊임없는 질문을 숙명처럼 안고 살았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성리학이란 그늘 속에서 모든 질문의 해답을 찾을 수 있었을까.

지금까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존재'라는 피할 수 없는 근원적 질문에 대해 성리학은 친절하게 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생로병사의 알 수 없는 질서를 종교가 아닌 학문이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학자의 끊이지 않는 학문적 호기심은 비단 성리학의 언저리에만 국한되지 않았을 것이다. 성리학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진 불교나 도교의 철학에 도전하고 싶었을 것이 뻔하다. 더불어 풍수지리 같은 새롭고 신비로운 하위개념의 학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그들은 학생들과의 교류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선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색으로 산사를 찾았을까. 그들이 경험했을 느낌을 체험하기 위해 순천 선암사로 길을 나선다.

선암사로 가는 길에 갑자기 남명 조식이 떠오른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남명은 황진이가 연모했던 화담 서경덕과 더불어 벼슬길에 나서지 않고 초야에 묻혀 살던 대표적인 처사(處士)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은둔 거사는 지리산을 12차례나 올랐다고 한다. 말년에는 아예 지리산 천왕봉이 바라보이는 덕산의 덕천강변에 산천재란 건물을 짓고 후학들을 가르쳤다고.

아무리 관직에 오르지 않은 처사라지만 말이 그렇지 문명의 이기가 없던 시절에 열두 차례의 유람이라니, 일단 그의 부지런함에 할 말이 없어진다. 선비들의 유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출한 배낭여행이 아니었다. 명색이 사대부의 행차가 아닌가. 갖가지 음식과 기양주를 짊어진 몸종들에 기생과 악사까지 대동한 요란한 유람이었고, 문명의 이기를 대신한 건 노비들의 노동력이었다.

1599년 여름, 조식은 제자들과 더불어 지리산행을 떠났다. 그들의 소지품은 상상을 초월한다. 칼국수, 단술, 생선회, 찹쌀떡 등의 음식과 비상 구급약까지 챙겨 갔다니 말이다. 그리고 그 유람을 <유두류록>이란 기록으로 남겼다. 이런 식의 기행문을 남긴 선비는 한둘이 아니다. 남효온의 <금강산 유람기>, 채제공의 <관악산 유람기> 등의 문집은 선비들이 유람에 얼마나 공을 들였고, 그 여정에서조차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들에게 유람은 관광의 목적도 있었겠지만 식견을 넓히는 일이자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돌아보는 일이기도 했다. 남명이나 화담이 살던 16세기는 사회의 시대였다. 아마도 그들이 처사가 된 건 그런 혼돈의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일지 모른다. 그런 처사들이 어디 그 둘뿐이었겠는가. 처사임을 자처한 뛰어난 선비들은 관직에 나아가 사회에 휩쓸리며 멸문지화를 당하느니, 금강산과 지리산을 배개 삼아 유람을 다녔던 것이다.

당시 유람이라 하면 대부분이 산행이었다. 산행이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들이 오르는 전국의 산에는 크고 작은 산사가 어디에나 있었다. 그러니 선비들과 승려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맞닥뜨렸을 것이다. 그리고 각기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서로에게서 이질감과 동시에 호기심을 느꼈을 것이





1



2

고, 그렇게 교류는 이어졌을 것이다.

“청컨대 무거운 종을 보오 / 크게 두드리지 않으면 소리가 없시오 / 두류산과 꼭 닮아서 / 하늘이 울어도 울리지 않는시오.”

남명의 시처럼 지리산은 절경이라 할 만한 비경은 없지만 그 은근함에 빨려드는 절묘한 매력이 있다. 이를 두고 어떤 이는 “지리산은 내밀한 풍경을 가진 도가적 풍모의 산”이라고 했다. 선암사를 품은 조계산 역시 도가적 풍모를 지녔음은 그 초입에서부터 확인된다.

길을 따라 도열해서 긴 팔을 들고 방문객을 반기는 숲길을 무심히 걷다가 마주친 쌍무지개 다리, 이를 하여 승선교(昇仙橋)다. 깊은 산중에서 이런 기품 있는 다리와 마주할 수 있음은 무슨 행운이란 말인가. 계다가 속세를 단절하기에 이만한 절차가 또 있겠는가. 자연석을 살린 조형미가 실로 아름답다는 말만 되풀이하게 만든다. 하지만 승선교의 아름다움은 깊게 흐르는 계곡 아래로 내려가 고개를 들어야 보인다. 아픈 다리를 쉬어 가라고 지은 것 같은 강선루(降仙樓)가 다리 아래 아치 속에서 반석을 하며 손짓을 한다. 하나만으로도 보물인 두 개의 조형물이 하나로 묶여 연출하는 풍경 속에서 든 생각. 이 두 조형물의 이름에 신선 선 자가 들어가 있음은 이 절에도 도가적 색채가 강함을 일러준다. 사찰명이 선암사(仙巖寺)인 것도 절 서쪽에 신선이 내려와 바둑을 두던 바위가 있었다 하여 지어졌다니, 이래저래 신선과의 인연이 깊은 절이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도착한 대웅전 앞뜰에서 바라본 선암사의 바깥 풍경. 그리 높진 않지만 조계산이 안온하게 둘러싸는 형국이 그야말로 안온함 그 자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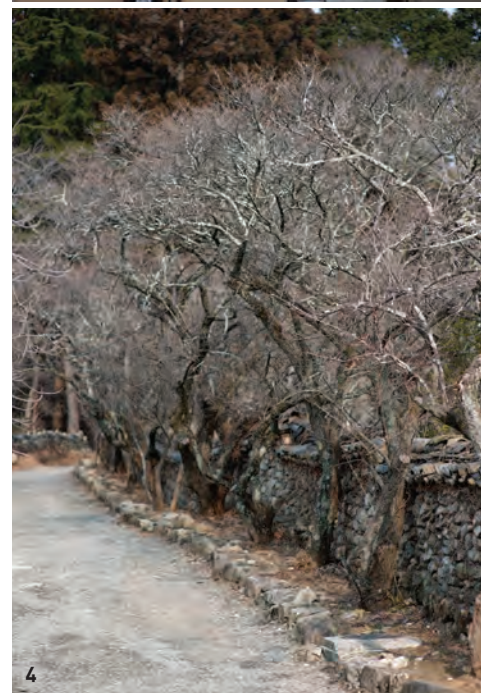
계절이 계절인지라 그 화려한 잔치를 만끽할 수는 없지만 선암사는 선암매란 이름이 붙은 홍매와 백매 50여 주가 원통전에서 각황전을 따라 운수암으로 오르는 담장을 따라 장관을 연출한다고. 못내 아쉬움이 남지만 천하 없는 볼거리도 때를 맞추지 못하면 허사라는 깨달음 한 가지는 얻고 갈 모양이다. 선암사의 단청은 색이 바랜 모습이 역력하다. 하지만 그 퇴색이 정겹고 자연스러운 건 비단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선암사의 명물 중 하나는 뒷간이다. 30여 채의 건물 중 화장실이 백미라니 이 무슨 조화인가. 건축가 김수근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측간”이라고 극찬했다지만, 건축물에 대한 심미안이 없으니 그건 잘 모르겠다. 다만 이런 생각은 들었다. 사찰의 측간을 해우소(解憂所)라고도 불렀다. 근심을 풀던 곳이란 뜻이다. 사찰의 측간에서 어디 몸의 근심만 풀었겠는가. 사찰은 민초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던 기도의 도량이기도 했고, 정치적 피로에 지친 선비들에게는 정신적 휴양지이자 학문 교류의 장이기도 했으니 말이다.

사찰의 끝자락 산신각 뒤로 차밭이 보인다. 차와 사찰은 불가분의 관계일지 모른다. 우리 차 문화의 현재를 있게 한 초의선사가 누군가. 조선 후기의 실학을 대표하는 정약용과 학문적 교류를 했던 정신적 동지였던 고승이 아니었던가. 아마 그 이름을 알 순 없지만 선암사의 2,000여 승려 중 누군가는 어느 선비와 더불어 다산과 초의의 정을 나누었을 것이다.

선암사를 내려오다 다시 승선교의 맑은 계곡을 바라본다. 추위만 아니라면 달이 차기를 기다려 계곡물에 비친 달을 술잔 삼아 시 한 수를 짓고 싶다. S

에디터 최태원(프리랜서) 사진 이종근



1 선암사에는 조선 시대에 주조된 범정이 무려 다섯 개나 있다. 그 가운데 범종루에 있는 종은 높이가 122.6센티미터나 되는 대종으로 속종 26년에 주조된 것이다. 2 선암사 일주문. 옆에서 보면 기둥이 하나처럼 보인다고 해서 일주문이라 한다. 사찰의 경역을 표시하는 동시에 부처님의 말씀 뜻을 뜻하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여기부터가 사찰인 셈이다. 3 선암사 일주문과 범종루 사이에는 금강문 인왕문이 있어야 하는데, 공간이 좁아서인지 그것이 보이지 않는 특징을 지녔다. 4 3월말에서 4월에 이르는 봄이 되면 전각을 감싸는 담장을 따라 홍매와 백매가 지천으로 피는 선암사.

소리의 정원에 울려 퍼진 가야금 선율

한국 전통 원림의 원형에 가깝다는 소쇄원. 우리의 전통 건축은 건물을 틀어주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건축물이 들어선 공간인 자연을 끌어들이는 철학을 지녔다. 맞춤형 공간에 건축물이란 점 하나를 찍는다고 해야 할까. 아무튼 그것 하나만으로도 벽찬 아름다움일진대 저기에 가야금산조의 청아한 선율이 바람 소리처럼 더해진다면, 그건 금상첨화다.





오롯이 한 사람이 누우면 그만인 광풍각(光風閣) 온돌방. 절제를 미덕으로 신봉했던 조선의 선비는 방마저 비좁게 지어 게으름을 경계했던 모양이다. 무릎이 맞닿을 듯한 방에 앉자, 이 집안의 15대 종손이자 원장인 양재혁 씨가 차를 따른다. 어느 부부가 뒷밭에서 키운 차를 우연히 여행 중에 얻었는데 별미라며 차를 우린다. 그의 선조이자 한국 민간 정원의 대표작인 소쇄원을 세운 양산보 역시 이 방에서 손님을 맞았으리라.

광풍각 앞으로는 양산보가 어린 시절 먹을 감았던 계곡이 흐른다. 그러니까 머리맡에서 계곡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선비의 방(枕溪文房)인 셈이다. 주인장과 그를 찾은 손님들의 귀에는 물 소리만 들린 것이 아니었다. 대숲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며, 새소리도 들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양산보는 이 원림의 가장 좋은 위치에 사랑방을 짓고 손님에게 소리의 향연을 양보했던 셈이다. 건축가이자 시인인 함성호는 그래서 “광풍각의 자리는 자연의 오케스트라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로열박스”라고 극찬했는가 보다.

그는 또 “많은 사람이 소쇄원의 조경에 대해 탄복하지만 소쇄원의 백미는 소리를 듣는 것에 있다. 소쇄원은 듣는 정원이고, 소리의 정원이고, 소리를 위한 정원”이라고 했다.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소쇄원은 시각적 풍경뿐 아니라 소리까지 온전히 끌어들이는 공간이다. 하지만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소쇄원은 비단 ‘풍경의 힘만이 지배하는 공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열다섯 어린 나이의 양산보는 부친의 손에 이끌려 조광조의 문하생이 되었다. 하지만 스승 조광조가 사회에 연루돼 귀향길에 오르고 사사되자, 이에 무상함을 절감한 그는 낙향하여 소쇄원을 짓고 세상에서 눈을 뗐다.

상쾌하고 맑고 깨끗하다는 뜻의 ‘소쇄(瀟灑)’란 이름도 그런 세상을 꿈꿨던 그의 의지를 반영한 작명이 아니었을까. 성리학자인 조선의 선비들은 유독 건축이나 조경에 공을 들였다. 요즘처럼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는 당연히 아니었다. 그건 건축물을 자신의 철학을 담는 그릇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양산보의 소쇄원 역시 그랬다. 현실 정치의 참담함을 일찌감치 터득한 그는 이 정원을 통해 자신만의 목소리로 항거하고 있었던 셈이다. 주인의 거처인 제월당(霽月堂, 비 개인 하늘의 상쾌한 달)에 앉아 그는 책을 읽고 소나무에 걸린 달을 바라보며, 비명에 돌아가신 스승의 넋을 기

1 한 여름 소쇄원의 별채인 광풍각에 누우면 계류의 흐르는 물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릴 것만 같다. 2 스승 조광조의 죽을 앞에서 낙심한 양산보는 어린 시절 자신이 들었던 계곡을 찾아 운둔의 정원을 지었다.



리고 세월을 한탄했을 것이다. 양산보의 처지에서 보면, 참으로 혹독한 시련이자 세월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유배나 자진한 낙향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후손들에겐 축복의 다른 이름이기도 했다. 추사나 윤선도, 그리고 다산과 양산보가 그런 시련을 겪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그 기간 동안 그들이 남긴 보물이 전해지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그렇듯 세상을 버리고 칩거에 들어갔지만 역학에 능했다는 그는 자신을 흠모하고 따르는 이들마저 내치지는 못했던 모양이다. 이 내밀한 개인의 공간마저 그들에게 내주었으니, 제월당은 음풍농월을 위한 정자라기보다 후학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정사(精舍)였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그 전통은 오래도록 이어졌던 모양이다. 양재혁 원장에 따르면 “소쇄원은 의병이 숨어들던 공간이 되기도 했고, 민주화운동을 하던 투사들의 피신처이기도 했었다”니 말이다.

광풍각 아궁이가 달아올랐을 때쯤, 가야금 연주자 추정현 씨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를 소쇄원에서 만난 건 그가 바로 이곳 제월당에서 자신의 연주 녹음을 한 인연 때문이다. 소리의 정원인 소쇄원과 가야금의 만남이라니, 제격이다.

이미 2009년 강진의 백련사에서 연주회를 가졌던 그에게 물었다. 야외에서의 연주가 갖는 특별함이 어떤 것이냐고.

“부담감이 컸죠. 스산한 가을 저녁, 끊지 않고 한 번의 연주로 녹음을 완성해야 했으니까요. 사실 처음엔 자연 속에서의 연주라 소리가 퍼지고 잡음이 연주에 방해가 될 것이란 우려를 했는데, 기우에 지나지 않았어요. 녹음을 마치고 들어보니, 소리가 변질되지도 않았고 과장도 없이 여음 하나하나가 날것 그대로 제 귀에 들려서 놀랐습니다.”

그는 자연(한옥)에서의 연주는 연주자에게도 진정성이 느껴져 색다른 감흥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와 함께 광풍각을 나와 제월당에 올랐다. 양산보의 사돈이자 호남을 대표하는 문필가였던 김인후가 소쇄원의 비경을 보고 지은 ‘소쇄원 사십팔영시’가 편액으로 걸린 제월당 마루에 앉아 추정현 씨가 산조가야금의 12현에 몸과 마음을 싣는다.

모름지기 500년 전 양산보나 그의 후손들도 이런 호사를 누렸을 것이다. 교묘한 달빛 아래서 가야금을 뜯고, 시를 읊지 않았겠는가.

“둥기디당당.”

끊어질 듯하다가 다시 이어지고, 이어지다 문득 멈춰 서는 가야금의 울음이 소쇄원 계류에 그대로 녹아내린다.

소쇄원은 한 해 방문객이 80만 명에 이른다. 반가운 일이지만 염려도 되는 부분이다. 사람들의 잦은 발길로 흙길이가 무너지는 등 원형이 손상되고 있어서다. 바라건대 소쇄원이 아프지 않았으면 한다.

가락과 장단으로 극치를 치달는 연주자

추정현 씨는 광주에서 나고 자라, 고향을 지키며 우리 가락을 전승하고 있는 가야금산조 연주자다. 광주예술고등학교에서 13년째 교편을 잡고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는 그에게 가야금은 어떤 악기일까?



만 세 살 때 KBS 아가노래회에 합격하면서 일찌감치 음악과 인연을 맺은 그가 가야금과 조우한 건 중학생 때였다. “언니가 산조가야금을 들고 와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 일종의 충격에 휩싸였다”는 그는 최옥삼류의 연주를 소셜원에서 자신의 음반에 담았다.

“산조의 틀을 완성한 김창조 선생의 제자가 최옥삼 선생입니다. 월북하신 까닭에 전승이 끊어질 뻔했는데, 가야금 명인 함동정월 선생과 명고수 김명환 선생이 기억을 되살려 오늘날의 최옥삼류가 완성된 것이죠. 최옥삼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남성적인 깨끗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절제의 미랄까, 여백의 찰나가 깊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진양에서 그 여백이 돋보이는데, 연주자의 기량에 의해 그 여백은 단순한 여백이 아니라 채워진 여백이 되고, 절정으로 치달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가 고향 광주를 고수하는 건 그곳이 가야금산조의 발원지라 할 수 있어서일 것이다. 그렇듯 가야금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불사르고 있는 그는 “예향의 후예들답게 감수성이 남다른 기특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를 두고 “가락과 장단을 쉽게 풀어내면서 관객의 몰입을 끌어내는 탁월한 연주자”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그는 다른 꿈을 꾸고 있다. 늘 “새로운 예술, 새로운 산조를 꿈꾸며 산조를 넘어설 수 있는 가락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의 갈 길이 더욱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그를 떠올리자 가야금의 여성성을 극대화할 줄 아는 그의 농밀한 연주가 다시 듣고 싶다. 소셜원에서라면 더욱 좋겠다. S

에디터 최태원(프리랜서) 사진 이종근

1 옥호에 달이 들어가서일까? 제월당에서 보는 무등산의 달은 절로 시심을 불러일으키는 자연 조명이었다. 2 양산보의 시인이었던 김인후가 소재원의 비경을 담은 시 48수가 편액으로 남아 전한다. 3 최옥삼류 가야금산조의 맥을 잇고 있는 추정현 씨가 제월당 마루에서 무등산을 바라보며 현을 뜯고 있다.

뿌리 깊은 야생초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마음속 깊이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현인은 어떤 모진 환경에도 흐트러짐이 없다.
 땅속 깊숙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자리 잡은 존귀한 뿌리처럼.

자연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그 삶이 참으로 인간의 모습과 닮았다. ‘뿌리’의 사전적 의미는 “식물의 밑동으로서 보통 땅속에 묻히거나 다른 물체에 박혀 수분과 양분을 빨아올리고 줄기를 지탱하는 작용을 하는 기관”이다. 또한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는 근본을 비유적으로 이르기에도 하며 어떤 일이나 사물의 연유하는 바가 오래 되었을 때에는 ‘뿌리가 깊다’고 한다. 꽃이나 열매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식물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본질적인 대상인 동시에 사물의 깊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뿌리인 것이다. 영양의 보고인 뿌리가 약용으로 귀하게 쓰이는 야생초를 고운 세밀화와 함께 살펴보자.

햇볕이 잘 드는 산과 들의 초원에 양중맛게 모여 핀 노란 빛깔의 꽃이 있다면 가만히 눈여겨보길. 작고 연약해 보이는 꽃과는 달리 사포닌을 함유한 뿌리가 매우 중요한 생약으로 쓰이는 시호(柴胡)는 간 장애 개선, 항염증, 스테로이드제 부작용 방지 등에 뛰어난 작용을 하며 한약재로 다양하게 쓰인다. 중국의 <본초강목>에는 “어릴 때에는 식용하고, 늙으면 뽑아서 땀감으로 한다. 이런 이유에서 짙은 산채·여초, 뿌리는 시호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시호라고 부른다. 민간요법으로 위염이나 초기 감기에 시호의 뿌리를 1일 5~8그램을 달여 먹으면 좋는데 고혈압과 담석증에 좋은 대시호탕, 식욕부진과 위염, 감기에 좋은 소시호탕 등 사용량이 다르게 처방되므로 구분해서 복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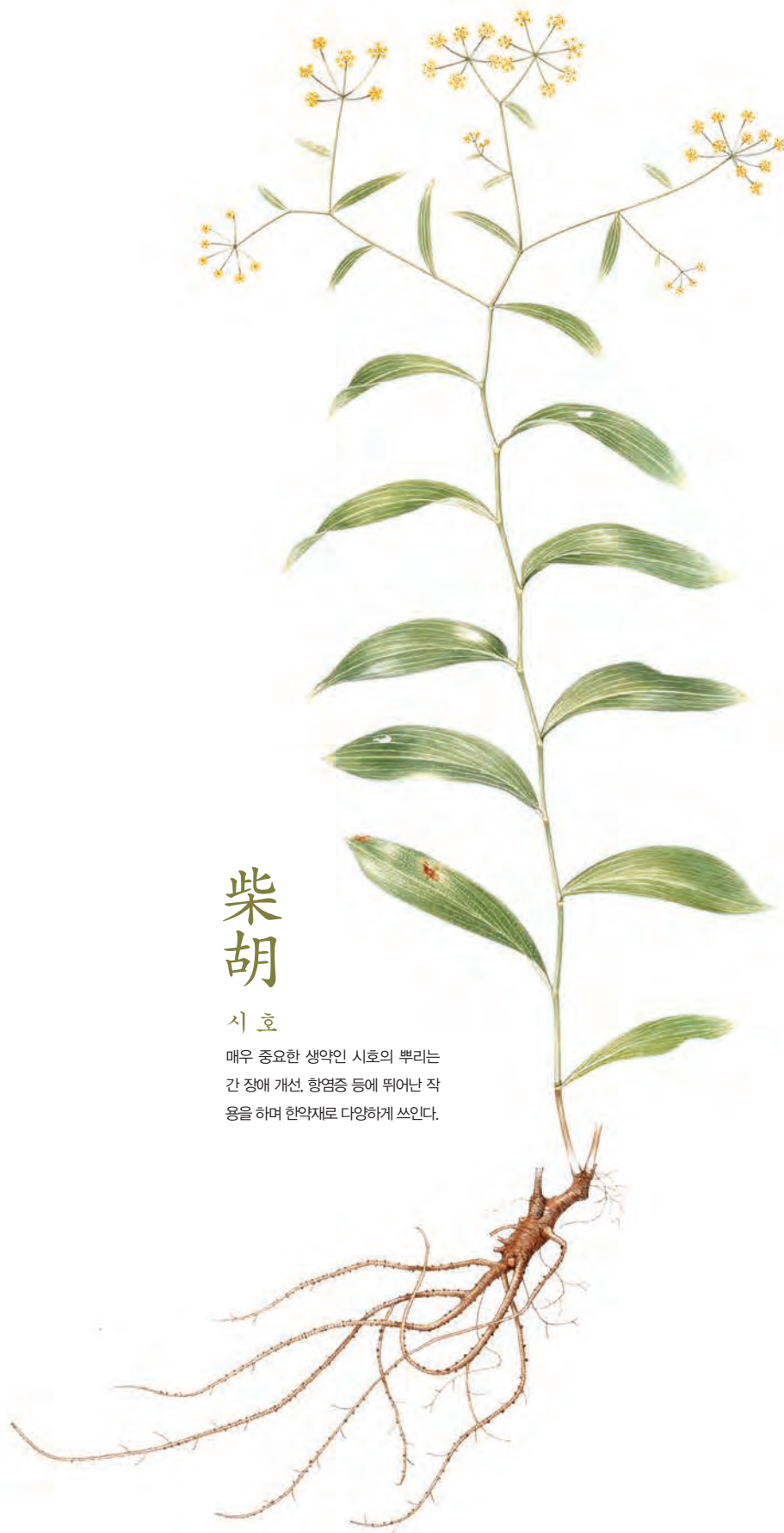
한여름인 7~8월이면 산의 물 빠짐이 좋은 반그늘 혹은 양지에서 입술 모양처럼 피어난 보라색 꽃을 뽐내는 황금(黃芩)을 만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름에서 황금색 꽃을 많이 연상하지만, 실제로는 뿌리의 안쪽이 황금색이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황금·자금·황금채 등 지방



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황금은 고고한 꽃의 자세 때문에 까다로운 생육 조건을 가졌을 법한데 보기와 달리 토양이 비옥한 곳이면 어디서나 잘 자란다. 황금의 어린순은 나물로 먹고, 원뿔형인 황색 뿌리는 약용으로 쓰이는데 10~11월에 2~3년생의 뿌리를 파내서 물로 씻고, 흙과 바깥 껍질을 나무 주걱 등을 이용해 제거한 후 서둘러 햇볕에 말린다. 이때 건조가 늦어지면 푸른빛을 띠므로 주의한다. 한방에서는 황금 뿌리를 소염 해열제와 지사제로 사용하며 황련, 대황과 배합한 삼황사심탕은 현기증·귀울림·코피·불면증에 쓰인다.

웅기종기 모여 피는 황금의 꽃과는 달리 꽃잎 끝이 솔처럼 잘게 갈라져 줄기에 드문드문 보라색 꽃이 피어 있다면 원지(遠志)다. 먹으면 능히 지혜가 늘고 의지가 강해진다는 의미를 지닌 원지는 꽃이 콩과의 씨리와 비슷하고 전체가 작기 때문에 딸싸리라 불렸고, <동의보감>에는 아기풀불휘라고 적혀 있다. 가을에 땅 위의 부분이 시들기 시작할 때 파서 물로 씻어 흙을 제거하고 햇볕에 말린 원지 뿌리는 사포닌을 함유하며 거담 작용과 정신 안정 효과가 뛰어나다. 따라서 객담을 용이하게 하며 건망증·가슴 두근거림·불면 등에 효과가 있다. 맵고 쓰며, 성질이 따뜻한 원지 뿌리는 잘 놀라면서 가슴이 떨 때, 가래 섞인 기침을 할 때, 건망증 등에 쓰인다. 진정·최면·강심·가래 삭임 등의 효능이 있고 용혈현상에도 효과가 있다. 민간요법으로 자양강장, 병후 회복, 피로 해소, 진해 등에 1일 원지 뿌리 3~5그램을 3컵의 물과 함께 반으로 줄 때까지 달여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세끼 식사 사이에 3회 나누어 마신다.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이종근 세밀화 그림 송훈 도움 주신 곳 아모레퍼시픽 미술관(031-283-0309) 참고 문헌 <약용식물대사전>다나카 고우지, 동학사)



柴胡

시호

매우 중요한 생약인 시호의 뿌리는 간 장애 개선, 항염증 등에 뛰어난 작용을 하며 한약재로 다양하게 쓰인다.



黄芩

황금

원뿔형인 황색 뿌리는 소염 해열제
와 지사제로 사용한다.



遠志

원지

원지의 뿌리는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으며 정신 안정 효과가 뛰어나다.



몸을 향기롭게 하다

내면과 외면의 미가 중요하다지만,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설화수 연섬바디에센스는 몸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에서 출발해 향을 통한 심신의 안정, 바디 마사지를 통한 혈액순환으로 얼굴의 기운을 밝게 가꾼다는 전체적인 아름다움에 중점을 둔 제품이다.

성종의 어머니 소혜왕후가 부녀자의 교육을 위해 쓴 책인 <내훈(內訓)>에 보면 “그저 깨끗이 씻고 청결하게 하는 것이 여자의 몸치장”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또 향신법(香身法)이라 하여 몸을 향기롭게 만들기 위해 모향(茅香)잎을 달인 물이나 영릉향을 풀어 목욕을 하곤 했다. 이처럼 옛 여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아름다워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다면 오감을 자극하는 설화수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완성될 수 있을까. 윤조에센스의 향을 통한 홀리스틱 케어가 그 시작이었다면, 그다음 단계는 바로 몸을 가꾸는 것이다.

특히 겉으로 보이는 얼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인 몸을 가꾸는 것에 평소 관심이 있는 여성이라면 설화수의 연섬바디에센스로 얼굴과는 또 다른 차원의 피부 관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얼굴과는 달리 몸은 피지선이 적어 수분 함유량이나 수분 보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되도록 주기적인 마사지가 필요하다. 우리 몸은 부위에 따라 건조함에 있어 차이가 크기에 연섬바디에센스를 사용할 때에도 마사지하듯 단계적으로 바르는 것이 효과적이다.

허벅지의 안쪽과 바깥쪽, 종아리 앞부분은 나이가 들수록 수분 함유량이 낮아져 노화에 따른 건조함이 심하다. 이 때문에 목욕 후 제일 처음 바르는 것이 좋다. 또한 팔의 바깥쪽과 종아리 앞부분은 얼굴을 주관하는 혈행인 양명경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부위이므로, 손끝이나 발끝에서부터 몸의 중심으로 기운을 모으듯 바른다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얼굴 피부까지 환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섬세한 아름다움을 지닌다는 의미의 연섬(娟纖)바디에센스는 오일스킨 타입의 독특한 질감이라 발랐을 때는 스킨처럼 가볍게 스며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일처럼 강력한 보습력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송자유, 연자유, 동백유, 매실유, 행인유로 구성된 다섯 가지 천연 에센셜 오일의 조합체가 바디의 건조와 탄력 저하를 케어해준다.

한방 미용법을 통해 균형을 되찾고 나만의 감각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피부 보습뿐만 아니라,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껴지는 향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휴식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예로부터 향기를 맡는다 하지 않고, 문향(聞香), 즉 향기를 듣는다고 했던 것처럼 향기는 코로 맡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느껴야 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을 맑게 만든다는 정서가 바탕을 이룬 향의 정신은 연섬바디에센스의 연섬 향으로 표현되었다.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는 향이 안정적인 호흡을 돕고 오감을 깨워 총체적인 아름다움의 근원을 되찾아줄 것이다.

화장품을 의인화시켜 화장의 과정을 재미있게 그린 조선 시대의 가전체 소설인 <여용국평난기(女容國平亂記)>를 보면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갖가지 화장품을 동원해 외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유순하고 깨끗한 마음씨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름다움은 무너진다고 지적하고 있으니 말이다. 예나 지금이나 여인들은 외모를 가꾸는 데 관심도 많았고, 화장도 즐겼으나 궁극적 아름다움에 대한 합일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얼굴, 머릿결, 자세, 향취 같은 외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갖추어야 하니 아름다워지기 위한 노력은 끝이 없는 듯하다. 5

에디터 유수아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운(다락)

해송자유, 연자유, 동백유, 매실유, 행인유의 다섯 가지 천연 에센셜 오일의 조합 성분이 몸 전체에 깊은 보습과 영양을 부여하는 한방 바디 에센스인 설화수 연섬바디 에센스. 오일스킨의 독특한 질감 덕분에 발랐을 때는 스킨처럼 가볍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일과 같은 풍부한 보습력이 장점이다.

아스라이 번지는 사랑하는 이의 향기

눈부신 봄날의 꽃과 사랑하는 내 님의 향이
차 한 잔에 가득 담겨 있다.



정자는 산 이름이라 내 마음에 새겨져 있고
 내 마음 어데 있느냐 하면 숲 속에 있네
 차 연기는 기나긴 봄날에 피어오르고
 꽃 그림자 군데군데 그늘지어 놓누나
 가득 부어 놓은 잔에 개미가 들었다고 청탁을 논하라
 발 밖에 제비는 장단 맞춰 지저귀누나
 봄맞이 걸음마다 구름은 디딜 자리 만들고
 시냇물 따라 길은 꺾어져서 깊이 온 줄 몰랐네

조선 시대 여류 시인 허난설헌의 시 '춘경(春景)'이다. 한 잔의 차를 즐기며 었 되고 눈부신 봄날의 풍광을 즐기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찻자리란 차를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차를 마시고 마음을 나누고 그 분위기를 함께 공감하는 곳으로, 우리 선조들은 차를 통해 사유하고 논하며 예를 갖추었다. 조선 시대 선비들은 강릉 활래정, 진주 축석루 같은 아름다운 정자나 자연의 계곡을 벗 삼아 풍류를 즐기는 찻자리를 자주 열고 간단한 다구와 거문고, 지필묵을 준비해 차(茶)·서(書)·화(畫)를 함께하며 고급스러운 문화를 향유했다. 또한 신사임당, 허난설헌 등 조선 시대 여인들은 아름다운 공예품으로 한껏 멋을 낸 안방에서 여러 가지 다식과 함께 편안한 찻자리를 즐기곤 했다. 소중한 사람과의 자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차였던 것.

그윽한 향과 함께 하는 시간

소중한 사람과 나누는 행복한 찻자리, 기분 좋은 기념일에 멋스러운 우리 차와 함께하면 어떨까. 오설록에서는 웨딩 그린티와 오설록 삼다연 제주영굴을 스페셜 에디션 제품으로 출시했다. 보기만 해도 상큼한 색감과 사랑스러운 그래픽이 그려진 패키지는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녹차와 신부의 부케를 형상화한 별빛 마리골드, 사랑스러운 핑크 장미, 행복의 상징 콘플라워가 들어간 오설록 웨딩 그린티는 꽃들이 빚어내는 스위트부케 향이 한 잔의 꽃향기로 피어올라 행복한 설렘을 전해준다. 여기에 핑크·화이트·블루 세 가지 꽃잎이 시각적 아름다움을 더해 마시는 즐거움을 배가시킬 것이다. 오설록 삼다연 제주영굴은 제주도 삼나무통에서 숙성한 후발효차에 제주 영굴을 더한 색다른 차다. 상큼한 영굴 에센스와 향긋한 과육이 스며들어 제주도의 싱그러움을 전한다.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소중한 이에게 평범하지 않고도 건강한 고백을 준비하고 있다면 오설록 러브 컬렉션과 함께 따뜻한 찻자리를 마련해보는 건 어떨까. 아스라이 번지는 달콤한 향이 마음과 눈에 스며들어 함께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임태준 스타일리스트 최서윤 어시스턴트 손예희, 윤숙현 도움 주신 곳 담연(02-546-6464), 설향(02-732-5294) 참고 문헌 <한국의 아름다운 찻자리>(김태연, 이른아침), <찻자리, 디자인하다>(이연자, 오픈하우스)

★오설록 러브 컬렉션은 3월 말까지 전국 오설록 티샵(주요 백화점), 오설록 티하우스, 오설록몰(www.osullocmall.com)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위 오설록 러브 컬렉션으로 새롭게 구성된 오설록 삼다연 제주영굴과 오설록 웨딩 그린티, 휴대용 컵. 왼쪽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비즈 장식 족두리, 레이스 저고리는 담연, 청화백자 찻잔은 설향.

자연과 전통, 그리고 과학이 만들어낸 도구

미네랄을 다량으로 함유한 차가운 기운의 옥,
정화 기능이 뛰어난 백자, 치유하는 기운의 호박.
전통적이며 과학적인 도구와 함께하는 시간.



설화수 스파는 귀한 한방 성분을 재료로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통적이며 과학적인 도구를 마사지 툴로 사용함으로 그 효능을 배가시킨다. 예로부터 귀한 재료로 여겨진 옥, 호박, 백자를 이용하는 것인데, <동의보감>에 약석으로 기록되어 있는 옥은 미네랄을 다량으로 함유해 피부 재생, 혈액순환, 노폐물 배설 등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신비한 효능을 지녔다. 이 차가운 기운을 가진 옥은 설화수 자음생 라인의 따뜻한 기운과 상생해 트리트먼트 효과를 극대화한다.

또한 양기가 풍부한 호박은 기원전 3,000만 년 전에 무성했던 소나무 송진이 지층에 매몰된 다음 오랜 세월이 걸쳐 지압과 지열에 의해 화석화된 유기질의 보석이라고 불린다. 신라의 향문화 중에는 호박으로 향을 피워 백성들이 병들지 않고 아름답고 건강하다는 기록이 전해지는데 일곱 가지 보옥 중 하나로 꼽히는 호박은 오장을 편안히 하고 여성의 신경 안정제로 쓰여서 트리트먼트 중 치유의 능력을 발휘한다. 호박의 치유하는 기운은 설화수 진설 라인의 방어하는 기운과 함께 만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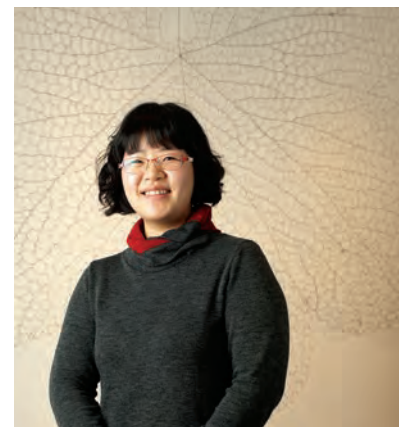
한국의 미를 대표하는 백자는 노폐물과 냄새를 흡수하는 강력한 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백자 고유의 단아하고 부드러운 곡선을 이용한 테라피는 살균 효과는 물론이고, 근육을 이완시켜 설화수 제품의 흡수력을 높여준다. 강력한 정화 기능을 가진 백자는 피부 속 수분의 흐름을 조화롭게 다스려주는 설화수 수율 라인과 만나 피부 속 깊숙이 촉촉함을 전해준다.

태곳적부터 존재했던 호박과 순백색의 백자, 천지의 정수이자 대지의 정물(精物)로 여겨진 옥, 자연의 고귀함을 고스란히 가져온 설화수 스파의 도구들은 선조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했던 자연 그대로의 고귀한 멋을 알려주는 전통적이며 과학적인 유산이다.

아름다운 인생의 동반자, 설화수

자연과 함께하는 귀한 아름다움을 발현시켜줄 설화수 스파에서 김남희 씨를 만났다. 따뜻한 미소와 밝은 성격으로 긍정의 에너지를 지닌 그녀. 대학생 때부터 쓴 설화수와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다고. 그런 그녀에게 설화수 테라피스트는 하얀 피부의 여성들이 종종 고민하는 찬 바람에 붉어지는 피부를 집중 케어해줄 고영양 트리트먼트를 추천했다. 인삼 뿌리와 진생베리 함유로 피부 재생을 강화한 설화수 자음생 크림과 각종 유효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된 한방 인삼씨 에센스 오일인 자음생 진생유가 건조해진 피부에 즉각적인 영양을 공급해준다. 케어를 받고 나온 그녀는 전문적인 테라피스트의 손길과 자연의 귀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설화수 제품으로 피부가 맑고 촉촉해졌다며 운전으로 인한 어깨 근육의 뭉침까지 해소되었다고 했다.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이은숙 **도움** 주신 곳 가원공방(02-2278-0250)



설화수 스파 트리트먼트 관리 후 심신의 조화를 되찾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실현한 김남희 씨.

설화수 스파는 설화수가 추구하는 미의 철학과 가치를 전문가들의 손을 통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 4층에 위치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문의 02-411-0262 **홈페이지** www.sulwhasoo.co.kr



극적인 삶을 살았던 아름다운 황후 이야기, 뮤지컬 <엘리자벳>

극적인 삶을 살았던 아름다운 황후 이야기, 뮤지컬 <엘리자벳> 천진난만한 소녀에서 한 나라의 황후로서 삶까지 아름다운 한 여인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여유를 가지고 싶어 한다. 그러나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긴장되어 돌아가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을 것만 같다. 작은 일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차가운 마음들과 말들만 내보인다. 그러나 해답은 자신이 갖고 있다. '여유가 생기면'이 아니라 '여유는 마음에서부터'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이미 알고 있다. 마음의 근심 걱정은 잠시 내려두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 문화 공연을 즐기며 삶의 여유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요즘엔 바쁜 현대인을 위한 문화 공연장이 도심 곳곳에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남동에 위치한 블루스퀘어는 대규모의 공연장과 갤러리,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이 함께 하는 현대인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이다.

봄 내음이 가득한 어느 저녁, 블루스퀘어에서 싱그러운 미소를 지닌 안수연 씨를 만났다. 빛나는 피부와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외모의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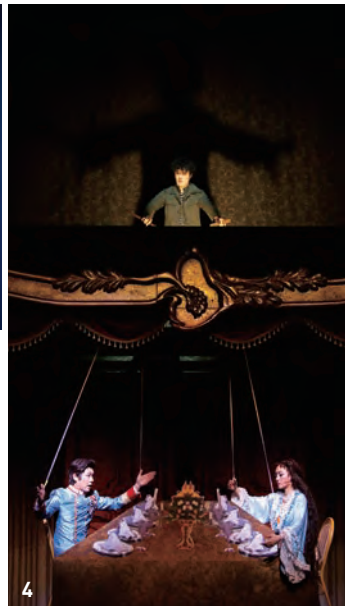
녀는 어머니가 쓰던 설화수를 추천받아 그 효과에 반해 지금껏 쓰고 있다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담뱃 받고 자란 그녀는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그런 그녀와 함께 볼 공연은 뮤지컬 <엘리자벳>.

뮤지컬 <엘리자벳>은 1992년 9월 음악의 도시 비엔나에서 공연 시작 5년 만에 이미 공연 1,000회를 돌파, 1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헝가리, 일본 등 세계 10개국 전역에서 900만 명 이상의 관객이 관람한 유럽 최고의 흥행 대작이다. 뮤지컬 <엘리자벳>은 실제로 존재했던 19세기 중반 오스트리아 황후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고 있다. 황후 엘리자벳의 인생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흥망과 맞물려 국민들의 관심을 얻었으며, 현재는 오스트리아의 어디에서라도 그녀의 초상화를 만날 수 있을 만큼 오스트리아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아름다운 외모와 더불어 황실의 여인답지 않게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 유럽 전역을 떠돌아 술한 일화를 남긴 까닭에 수많은 예술가들의 뮤즈가 되어왔다. 국내에는 뮤지컬 <모차르트>로 더욱 유명한 세계적인 극작가 미하엘 쿤체와 작곡가 실베스터 르베이의 작품으로 '죽음'과 사랑에 빠진 황후라는 독특한 설정의 스토리와 유럽 특유의 웅장한 음악, 화려한 무대장치와 의상을 선보인다. 말타기와 외줄타기를 좋아하는 천진난만한 소녀부터 이들을 잃고 남편인 황제 요제프가 사랑을 고백한 호숫가에서 아들이 갖고 놀던 배를 띄워 보내며 '행복은 없었다'고 말하고 죽음을 맞는 노년까지 회한에 찬 여인의 삶을 통해 영혼과 자유를 빼앗긴 한 인간의 고통과 외로움을 고스란히 전하는 엘리자벳. 10대부터 60대까지를 넘나들며 연기하는 엘리자벳 역엔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영웅> <조로>까지 오랜 시간 뮤지컬계 최고의 여배우 자리를 놓친 적 없는 배우 김선영과, 뮤지컬 <아이다> <시카고> <캣츠> 등 출연 작품을 모두 흥행작 대열에 올려놓은 여배우 옥주현이 더블캐스팅됐다.

여름휴가를 위한 궁전에 1,400여 개가 넘는 방이 있었을 만큼 성대했던 황가 합스부르크의 호화로운 모습이 무대 위에 고스란히 재현되었으며, 공중에서 내려오는 브리지, 와이어를 이용한 플라잉 신 등 곳곳에서의 '죽음'의 등장은 공연의 판타지적 요소들을 극대화했다. 또한 다양한 곳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영상들은 무대의 입체감을 높여주며 탄성을 불러일으켰다.

유럽 특유의 웅장하고 드라마틱한 음악과 어우러진 다양한 군무, 화려한 조명, 48명의 출연 배우가 모두 발레 레슨을 따로 받았을 만큼 열렬한 배우들의 열정. 19세기 중반 먼 나라 오스트리아 황후의 일대기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유였다.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이은숙 도움 주신 곳 EMK뮤지컬컴퍼니(02-6391-6333)



1 많은 사람이 모인 <엘리자벳> 매표소 앞. 2 복합 문화 공간 블루스퀘어의 외관. 3 싱그러운 미소의 주인공 안수연 독자. 4, 5 뮤지컬 <엘리자벳>의 공연 모습. 웅장한 음악과 화려한 무대장치가 압권인 공연의 백미는 단연 명품 배우들의 열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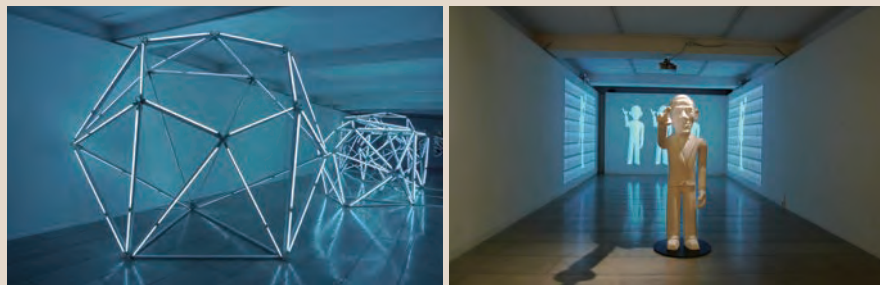


〈천민정: 폴리팝전〉

미디어 시대, 이미지 시대라 불리는 현시점에서 〈천민정: 폴리팝전〉은 넘쳐나는 정치문화, 대중문화에 대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작가의 주관적 체험, 소화 방식을 통한 유쾌한 소통의 시간이 될 것이다. 에디터 문비송

천민정은 1990년대 중반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미디어아티스트로 도미(渡美) 후 정치문화와 대중문화에 대한 시각적·철학적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 타이틀 ‘폴리팝(Polipop)’은 작가가 지난 15년여 동안 천착해온 다양한 형식과 구성의 작업 세계를 총칭하는 말로 ‘폴리티컬 팝아트(Political Pop Art)’의 줄임말이기도 하다. 대대적인 이미지 선동(煽動)으로 보이는 천민정의 이번 ‘폴리팝’은 가히 시각 이미지의 웅단폭격이라 할 수 있는데 전시장 벽면을 가득 메운 강렬한 원색의 이미지들은 결코 낯설거나 위압적이지 않다. 친숙함을 넘어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고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반가운 마음도 앞선다. 어렵지 않게 강렬한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시공을 넘나들며 동서남북의 문제를 시각적으로 재고하는 작가의 왕성한 이미지 소화력이 압권이다.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감성과 재치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대중문화정치, 대중정치문화 현실에 대한 그녀의 생각을 바탕으로 한 개성 있고 균형 있는 주관적 이미지 소화 방식에 눈을 뜨기 어려운 이유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를 위한 ‘오바마 방(Obama Room)’, 극동아시아 여러 나라 간의 관계를 주제화한 방안 ‘독도의 방(Dokdo Room)’, 현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내재된 문제점들을 다이아몬드 광채로서 은유, 비판한 ‘다이아몬드 방(Diamond Room)’을 보여주는 3개의 공간으로 나뉜 전시는 3가지 소주제를 통해 정치와 팝문화, 미디어 세상을 결합한 폴리팝의 다양한 예술적 표현을 보여준다.

일시 1월 13일~3월 11일 장소 성곡미술관 문의 02-737-7650



세계 4대 거장 그랜드 오페라 갈라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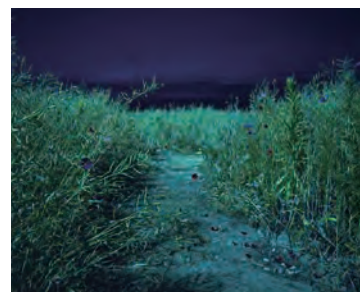
수식어가 필요 없는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 사실주의 오페라의 대가 푸치니, 이탈리아가 낳은 최대의 오페라 작곡가 베르디, 베리스모 오페라에 큰 영향을 미친 비제. 이들의 대표 작품인 ‘마술피리(모차르트)’, ‘토스카(푸치니)’, ‘라 트라비아타(베르디)’, ‘카르멘(비제)’을 선보인다. 천재 작곡가 4인의 걸작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이번 공연은 탁월한 음악 해석으로 세계무대에서 각광받는 이탈리아 지휘자 파올로 타리초티와 넓은 음역과 섬세한 테크닉을 구사하는 소프라노 이지연 등 국내 최정상급의 성악가 함께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관객에게 오페라도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일시 3월 24일 오후 4시, 8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02-3476-6224 관람료 VIP 석 15만원/R석 10만원/S석 7만원/A석 5만원/B석 3만원

〈밤의 너비〉전

하루는 24시간이고 자전으로 지구의 반은 12시간 동안 밤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러나 밤의 너비는 태양의 반대편 지구에 물리적으로 국한되지 않고 전 우주로 또는 눈을 감는 순간 눈 뒤로 무한히 확장되는 인간의 내면으로 확대될 수 있다. 〈밤의 너비〉전은 우리 눈앞에 지시적으로 읽어낼 수 없는 밤의 확장적 의미와 심상들을 탐색한다. 강민수, 박형근, 이만나, 정지현의 회화, 사진, 설치 작품들을 통해 해질 무렵부터 동트기 전까지라는 시간적 의미의 밤과 물리적인 어둠의 장으로서의 밤이 내포하는 여러 특질들을 탐색한다. 그 끝을 헤아릴 수 없는 수평의 너비로 의식과 감각, 소통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잠재력의 장인 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일시 2월 11일~4월 1일 장소 파주 금산 갤러리 문의 031-957-6320



뮤지컬 <캐치 미 이프 유 캔>



뮤지컬 <캐치 미 이프 유 캔>은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톰 행크스 주연의 동명 영화를 재해석한 작품으로 토니어워즈 3개 부문 노미네이트, '남우주연상', 드라마데스트 어워즈 '최고의 배우상' 등을 휩쓸며 2011년 브로드웨이를 뜨겁게 달군 작품이다. 이번 한국 공연은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지 1년 만에 만나게 된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배우 엄기준과 규현(슈퍼주니어), 박광현, 김정훈, 키(사이니)의 5인 5색 '프랭크'의 다채로운 매력이 기대되는 공연이 될 것.

일시 3월 28일~6월 10일 **장소**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 **문의** 1577-3363 **관람료** First Class 12만원/Business Class 10만원/Economy Class 6만원

요요마 & 실크로드 앙상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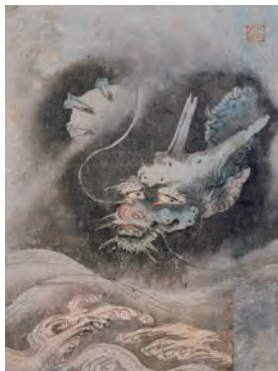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가 실크로드 앙상블과 함께 2년 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한다. 요요마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몽골, 이란, 인도, 터키 등 옛 실크로드 지역에 위치한 국가의 음악가들을 모아 1998년 '실크로드 앙상블'을 구성했고, 서양의 클래식과 팝, 동양의 민속음악을 접목시키는 새로운 시도를 하며 음악을 통한 동서 교류에 앞장서왔다. 최근작 <지도 밖으로(Off the Map)> 앨범은 2011 그레미상 최우수 크로스오버 클래식 앨범 부문 후보에 오르며 서양의 아름다운 선율과 동양의 즐거운 흥이 자연스레 만나, 흥겨운 무대를 선사한다. 음악을 통해 전 세계의 연주자와 관객이 화합하고 소통하며 이웃이 되는 것이 목표라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공연이 될 것이다.



일시 3월 12일 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의** 1577-5266 **관람료** R석 17만원/S석 14만원/A석 10만원/B석 6만원/학생석 3만원

<용의 해, 임진년을 맞아 새롭게 선보이는 옛 그림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새해를 맞아 소장품 가운데 중요 작품을 선별하여, 서화관 회화실의 전시품 93점을 새롭게 선보인다. 조선 초기 화가 안견부터 조선 후기 겸재, 조선 말기 민영익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화단을 대표하는 유명 화가들이 그린 다양한 작품뿐



아니라 임진년 새해를 맞아 전시되는 조선 시대 용 그림도 이번 전시에서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15세기 중엽~16세기 전반에 활동하였던 석경(石敬)이 그린 것으로 알려진 <운룡도>는 여의주를 앞발로 친 채 구름 속으로부터 몸을 부분적으로 드러낸 용의 역동적인 모습을 묘사한 작품이다. 이번 전시는 조선 시대 회화의 깊은 맛과 미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시 1월 31일~ 5월 27일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서화관 회화실 **문의** 02-2077-9497

화이트데이 아르크 콘서트 <송영훈 & 김정원 - Fall in CHOPIN>



연주회 외에도 음악을 공부하던 어린 시절부터 서로의 음악을 공유하는 친구였고 이제는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첼리스트 송영훈과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드디어 만났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명실상부 최고 쇼팽 스페셜리스트로 손꼽히는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쇼팽의 곡을 직접 편곡하여 첼로와 피아노의 색다른 구성을 준비했다. 심세하면서도 부드럽지만 가슴에서 우러나는 피아노만의 음색을 들려주며 19세기 낭만주의 음악의 정점에 우뚝 섰던 '피아노의 시인' 쇼팽의 대표곡으로 채워지는 무대. 특히 쇼팽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곁을 지키며 쇼팽과 함께했던 친구이자 자신의 작품 속에서 그만의 화풍을 발휘했던 들라크루아와 쇼팽의 우정 이야기를 콘서트마스터 윤준중의 해설과 함께 더욱 진하게 느낄 수 있다.

일시 3월 14일 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의** 02-580-1300 **관람료** R석 7만 7,000원/S석 5만 5,000원/A석 4만 4,000원/B석 3만 3,000원

제인 버킨과 세르주 갱스부르

영국에서 태어나 프렌치 팝의 아이콘이 된 유일무이한 인물이며 영화배우 겸 모델인 제인 버킨. 그녀는 자신을 뮤즈로 삼은 명품 브랜드의 가방이 있을 정도로 시대를 초월한 스타일 아이콘으로, 또한 샬롯 갱스부르와 루드와이옹에게 빼어난 감각을 전수시킨 어머니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제인 버킨의 히트곡과 그녀를 통해 재현되는 프렌치 팝의 거장 세르주 갱스부르의 걸작들이 소개된다. 제인 버킨과 삶의 동반자이자 음악적 동반자적 관계였던 세르주 갱스부르와 함께 만들어 낸 히트곡은 영국 음악 차트 역사를 바꿔놓았으며 그들이 함께한 작품들은 오늘날 후대 음악가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나이를 잊은 무대 매너와 음성, 전성기 프렌치 팝의 분위기는 물론, 복고적인 재즈 밴드의 느낌을 재현해내는 밴드의 탁월한 편곡과 연주로 화사한 봄날에 아름다운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일시 3월 22일 오후 8시 **장소** 악스코리아 **문의** 02-6339-1232 **관람료** 전석 11만원

설화수 윤조에센스 100ml 'I Love First' 출시

설화수의 베스트셀러 제품이자 설화수를 처음 접하는 이들이 제일 먼저 선택하는 제품, 그리고 세안 후 가장 첫 번째로 사용하는 제품인 윤조에센스 100ml가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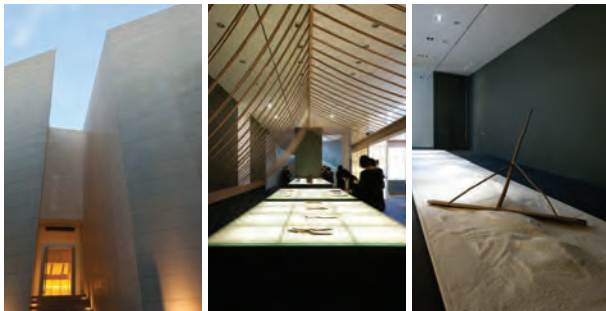
기존 60ml 용량에 40ml가 더해진 윤조에센스 'I Love First' 에디션은 윤조에센스의 영문명인 퍼스트 케어 세럼(First Card Serum)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스킨케어의 가장 처음 단계에서 사용하여 이후 제품을 위해 건강한 피부 바탕을 만드는 기본 중의 기본이 되는 제품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윤조에센스 100ml는 바로 그 '처음'의 의미를 각인시키는 영문 로고가 패키지에 담겨 있어 새로운 윤조에센스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윤조에센스의 인기가 비단 국내에만 그치지 않고, 미국, 중국, 홍콩 등 세계 각국의 설화수 매장에서 높기 때문에 이러한 파격적인 영문 로고 패키지는 더욱 신선함으로 다가온다.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영부인들을 감동시킨 선물 역시 윤조에센스였다. 영부인들에게 한국의 미를 알리기 위해 정성스레 포장했듯이 세심하게 준비한 윤조에센스는 귀한 이들을 위한 선물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명사와 함께 장인을 만나다, '2012 설화문화클래스' 개최 예정

시간이 흐를수록 빛이 바래기는커녕 늘 새로운 힘으로 그 정신의 광휘를 드리우고 있는 위대한 전통문화의 유산들. 설화수는 문화예술계 명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이러한 우리 전통문화의 위대함을 알려 왔으며 대표적인 메세나 활동인 '설화문화전'을 통해 우리 공예와 예술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통·현대 작가의 작품 제작과 전시 지원을 통해 한국적 미감을 이어왔다. 2012년 설화수에서는 전통문화의 공유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설화문화클래스'를 진행하여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기존의 '설화문화전'이 전통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했다면 '설화문화클래스'는 고객이 직접 그 속에 담긴 근본의 지혜를 배우며 장인의 숨결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명사와 함께 장인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4월 말부터 한 해 동안 총 3회 진행될 '설화문화



클래스'는 문화예술계 명사들과 전통문화 장인들의 깊이 있는 대담 그리고 장인에게 직접 배워보는 전통 공예 클래스와 설화수 브랜드 가치 체험 등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전통문화로의 여행이 될 것이다.

오늘에도 여전히 살아 숨 쉬는 조상들의 생취(生趣)를, 현상의 저편을 투시하는 형형한 눈빛을 만나는 순간. 시공을 초월한 깊이 있는 아름다움과의 조우 '2012 설화문화클래스' 그 첫번째 이야기는 설화수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sulwhasookorea>)을 통해 자세한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며,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S

빛깔에서 피어나는 칠보공예의 멋

영롱한 일곱 빛깔의 칠보공예는 모든 자연의 색을
담아냈던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Sulwhasoo〉 독자 참여 코너 ‘전통공예 배우기’

매호마다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코너를 마련하는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에서 다양한 공예 기법으로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 맞게 재해석한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전통공예
배우기’ 칼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독자엽서를 통해서 응모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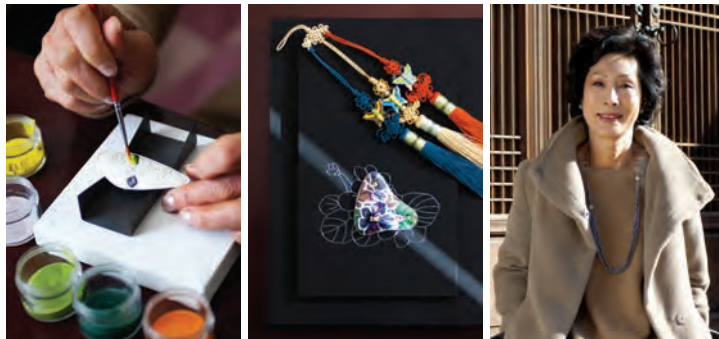
“법고이지변(法古而智變), 창신이능전(創新而能典).” 옛것을 본받더라도 변화를 알아야 하며, 새것을 창작하더라도 옛것에 능해야 한다고 한 연암 박지원의 이야기다. 옛것을 본받으라고 하면 겉껍데기만을 흉내 내니 문제가 되고, 새것을 만들라고 하면 가당치 않은 말만 늘어놓으니 문제가 된다. 그러나 옛것을 본받더라도 오늘에 맞게 변화시킬 줄 알고, 새것을 만들더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서울 종로 계동에 위치한 북촌문화센터는 옛것이었던 전통문화를 새것인 현대문화에 어우러지게 발전시키며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 있는 소중한 곳이다.

이곳에서는 대대손손 가옥을 물려받은 후손들, 오랜 세월을 한자리에서 살아온 토박이 주민들,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장인들이 지켜온 북촌의 정취를 그대로 느끼며 우리의 전통문화를 배워볼 수 있다. 거리마다 봄 햇살이 가득한 어느 날, 도회적인 외모와 흰칠한 키의 김영애 씨를 만났다. 아모레퍼시픽의 전신인 태평양화학에서 근무했다는 김영애 독자는 〈Sulwhasoo〉와 함께하는 전통공예를 배우러 오는 길이 친정집에 놀러 오는 것처럼 설레었다고.

지금도 당시의 사우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마음을 나눈다는 그녀와 함께 배워볼 전통공예는 칠보공예(七寶工藝). 금·은·유리·수정·거거·마노·산호 등 일곱 가지 보배의 빛깔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에서 유래한 칠보공예. 금속을 비롯해 다양한 재료 위에 유리질의 유약을 바르고 섭씨 700~900도에

서 구워내면 일곱 가지 빛깔이 영롱하게 빛난다. 오늘날 칠보공예는 칠보 하면 떠오르는 노리개나 비녀뿐만 아니라 간편한 옷차림에도 멋스럽게 어울리는 칠보 장식 브로치, 고운 색감의 나비가 장식된 머리띠 등 현대적인 작품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우리의 전통공예가 이렇게도 현대적일 수 있느냐며 감탄하던 그녀의 얼굴에 봄꽃 같은 미소가 번졌다.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이은숙 도움 주신 곳 서울시 북촌문화센터(02-3707-8388, <http://bukchon.seoul.go.kr>)





page 26 | **Quality Life**

<Quality Life> is a column about tracing the steps of Korean ancestors to explore the lifestyles and aesthetics of the past beyond cultural heritages. This issue introduces Sarangbang, the salon of Joseon, where Korean ancestors exchanged information, discussed business, and interacted with one another in the town. Examine the women's wisdom to serve food in special vessels for guests and carefully prepare the bedding, warmth, and fragrance of the room to satisfy the five senses of guests.



page 40 | **The World's Design Hotel**

<The World's Design Hotel> introduces the world's design hotels that are glowing with unique personalities, from the hotels built by renowned designers to the design hotels of fashion brands. Hotels are no longer just for travelers' lodging; they now offer rest beyond visual pleasure. This issue introduces Hotel du Petit Moulin in Paris, which is located in a 17th-Century building renovated by Christian Lacroix, a fashion designer.



page 46 | **Art Class**

<Art Class> is a column about exhibitions recommended by renowned art critics in Korea for art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This issue introduces <The Master of Korean Contemporary Art-Whanki Kim>, the retrospective exhibition of Whanki Kim, who has created a unique world of Korean aesthetics from conceptual to abstract art and has been called the Picasso of Korea. This exhibition will display a careful selection of his major artworks and undisclosed artworks.



page 52 | **The Encounter of Tradition and Modernity**

<The Encounter of Tradition and Modernity> is a column that explores the wardrobes, food, and homes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introduces artworks that beautifully harmonize tradition and modernity. East and West, and past and present are not contrasting concepts, but coexisting concepts that allow us to discover the new aesthetic value. This is why we wonder how it would look when Korea's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meets western trends.

page 60 | **Sulwha Cultural Exhibition - Meet the Master**

<Sulwha Cultural Exhibition-Meet the Master> is where you can meet the skills of the masters preserving and developing Korean tradition to realize the beauty and superiority of Korean traditional craft. This issue introduces Park, Seon Keung, the master of knot from a family that has been creating knots for four generations, including her grandfather, who was the first master of knot and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mong the masters who have participated in Sulwha Cultural Exhibition, which is Sulwhasoo's beautiful footsteps to preserve Korean heritage.



page 68 | **In Search of a Space for Rest**

<In Search of a Space for Rest> introduces tourist attractions that offer comfort and healing to modern people for peaceful mind. Seonamsa is One of the Buddhist temples that preserve the most traditional heritages, including seven treasures, 12 local cultural heritages-the magnificent and colorful Daewoongjeon, Ilju Gate-and a Buddhist statue engraved on a massive rock. With Mt. Jogye hiking course, and the luxurious forest from Jasaeng Tea Garden and Songgwangsa Temple to Seongamsa Temple with 800 years of tradition.



page 74 | **Trip of Korean Music**

This issue's Journey to Korean Music introduces Jung Hyun Choo, who is a native of Gwangju and succeeds the Ok Sam Choi's Gayageum Sanjo. Her performance has been captured in Sosaewon of Damyang near her hometown. Enjoy the combination of Sosaewon in Damyang, one of the most beautiful Korean traditional gardens, and Gayageum.

★ 'Has been nominated for' the Grammy's under <Trip of Korean Music> in <Sulwhasoo> Magazine's January/February issue has been replaced with 'has entered.'



page 84 | **Sullocdawon(雪綠茶園)**

<Sullocdawon> is a column that spotlights the reemerging tea culture for the best tea-drinking experience. This issue introduces o'sulloc Love Collection, the limited edition for the Valentine's Day and the White Day. Enjoy the tea table with o'sulloc Wedding Green Tea filled with sweet fragrance and o'sulloc Samdayeon Jeju Tangerine with tangy tangerine essence and flavorful fruit.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 여러분을 위한 고품격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독자엽서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독자께서 보내주신 내용은 더욱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독자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설화수 제품 등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내의 독자엽서로 우편을 이용해서 응모
- 응모 마감** 2012년 4월 15일까지
- 중정 선물** 설화수 윤조에센스 외
- 당첨자 발표** 2012년 5/6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란 참조
- 문의** 02-709-5525



설화수 윤조에센스 10명

설화수 윤조에센스는 촉촉함을 더해 피부를 윤택하게 보살해주는 한방 에센스입니다. 세안 후 가장 먼저 피부에 바르면 메마르기 쉬운 피부에 윤기를 주어 다음 단계의 흡수 및 효능을 높이는 부스터 기능의 제품입니다. 문의 080-023-5454



오설록 우전(雨前) 5명

오설록 우전은 제주의 설록 직영 다원에서 이른 봄 정성껏 딴 첫물차를 전통 방식으로 덫어 만들어, 구수한 맛과 향을 간직한 고급 우전차입니다. 최고의 잎만 따서 세심한 공정을 거쳐 만든 우전의 깊고 풍부한 맛은 지친 현대인의 몸과 마음에 여유를 선사합니다. 문의 080-023-5454

1/2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 명단

설화수 윤조에센스(10명)

- 강은정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2동
- 김정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 박명옥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2동
- 박순애 경기 용인시 상현동
- 서정숙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 안수연 서울 강남구 대치2동
- 엄재경 부산 남구 대연6동
- 이선미 경기 군포시 산본동
- 조선희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 홍명옥 서울 강서구 발산동

오설록 우전(5명)

- 강규옥 경기 남양주시 강변북로
- 김영숙 강원 춘천시 조양동
- 박미연 대전 서구 도마동
- 진정숙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 한승희 대구 수성구 지산동